朝鮮日報
夕刊
二十四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安達總裁, 首相訪問
內閣改造를進言
選擧結果政府에有利하나絕對多數는不得
眞正한擧國一致勸告

【東京電話電通】安達國同總裁는 廿三日正午 麻布私邸에 淸瀨一郞氏의來訪을 바더 選擧後의政局에對한 國同의態度에 對하야 여러가지로 協議를 遂한結果 選擧結果는 政府側에 有利하엿스나 그러나 民政黨, 昭和會及 政府系中立을合算하드라도 絕對多數를 制하게되지못하엿스므로 政局의歸趨는 반드시 政府가期待하는 明朗圓滿한 擧國一致의政情을 現出하지못하엿다 他方 現下의內外非常時局은 더욱 擧國一致의强化를 必要하므로 政府及政友會에對하야 國同은보담더 積極的으로活動하야 擧國一致案을 提供하는것도 時宜에適한것이다 라는데 意見一致되엿스므로 安達總裁는 即時 岡田首相을 訪問하고 一時間餘에 亘하야 所信을披瀝하고 內閣改組에도 牴觸하야 首相의意向을 打診하엿다 이에對하야 岡田首相도 趣旨에잇서서는 同感을 表明하엿는데 內閣改組等 具體的問題에對하여는 確言을與하지안코 單純히 安達總裁의進言을 諒解한다는程度로 會見을 終了하엿다

提議內容
(寫眞은 安達總裁)

【東京電話電通】二十三日 安達國民同盟總裁는 岡田首相及 鈴木政友會總裁를 訪問하엿는데 安達總裁로부터 首相에게 提議한 內容은 左와如하다

一、政府는 急히 特別議會를召集하고 過般 議會에 提案한 總豫算案에包含된 軍事費及土木振興費其他 緊急事項의 急速通過를 圖할것

右特別議會는 短期間으로써足함

二、政府가 眞正한 擧國一致를 希求하는 誠意가잇스면 右特別議會終了後 國內各勢力의協力을 求하기爲하야 政治上重大考慮를할것

三、今回의 選擧結果 國民의審判이 決定된以上 政友會는從來의 關係를 一擲하고 眞正으로 擧國一致에則하야 政府乃至 反對黨勢力과協力하야時局突破에 邁進할것

그리고 安達總裁는 더욱 右에 附加하야 얘번考慮하여보앗스나 이것이 第一穩健中正한 方法이라고思惟되므로 總理는 擧國一致를입으로만 부르지지말고 眞正으로 그것을希求한다고 하면政友會도 一大 勢力인즉 이것도 認定하야 特別議會를 無事 終了케한後에 入閣其他의方法으로 協力을求하야 擧國一致의實을 擧하기바란다 고 考慮를求하엿다

眞正한擧國一致엔 政友入閣必要
會見後安達總裁談

【東京電話電通】安達總裁는 岡田首相及鈴木總裁와의會見後 左와如히말하엿다

二十三日總理와 會見하고 三項目의重大提言을하엿는데 政府로서는 軍縮會議와 選擧도 치럿고 또 特別議會도 無事終了케되는것은 非常한 成功이다 特히 此際特別議會를 無難케해서는 政府를爲해서나 또는 國家를爲해서나 조치못하므로 政治上重大考慮가 第一緊要하다 即重大한 考慮라는 것은 眞正한 擧國一致를爲하야 政友會側도入閣케하고 其他 各勢力의 協力도求하야强力內閣의實現을期하는데 不外하는것이다 그리고特別議會는 勿論 三週間以內의短期間으로 조타고思한다 그리고鈴木總裁는病床에서 맛낫스나 意外로元氣가조왓다 爲先 同君의落選을 慰勞한後 總理와의關係으로 文書를 提示하고 忠言을試하엿다 그리고 政友會에對하여는 今後에도 機會만잇스면 眞正으로 이것을 實現하도록 勸하려고 思한다 町田總裁에 對하여는 總理와會見하고 말한以上特別히맛날必要는업다

安達總裁의一石 政局에波動微妙
政友가野黨의態度固持하면
國同의支持獲得이必要

【東京電話電通】一個月에 亘한 政戰結果 民政黨은 二百五名을 獲得하고 第一黨을 占하엿는데 이에 昭和會二十名을 加하야確實히 政府系로 指目되는中立議員九名을 算하면 與黨側의 勢力은 二百三十四名이되여 艱辛히 絕對多數를 制하게되엿다 이미 民政黨中에도 選擧違反으로失格될이가 數名잇는 模樣이므로 이絕對多數를 이대로 確保하기는 期待하기困難하다 그러나 政府가 特別議會에 臨함에當하야 政局의 絕對安定을 期하기爲하여는 政友會側이 어데까지野黨으로 邁進할決心인以上 적어도 五名을 獲得한 國同을 政府派로하야 그支援을 確保할수밧게업고 그러라고하면 擧國一致强化의名目下에 安達總裁의 入閣을求하는것이 가장效果的인데 民政黨은 第一黨으로 當然 岡田首相에게 要求할수잇는 內閣改造問題를 自重하야 特別議會後까지 保留할 方針인데 此際 國同側에서 入閣前提로 內閣改造의先鞭을 打한것은 黨의 面目上默過 할수업는바로 結局 安達總裁의 入閣問題는 多大한 困難이잇는바 何等效果的 方策을講究치안는限 國同의 支援을 期할可望이업다 다만케스팅보ー트를쥔 國同側의 如斯한 入閣策이 表面化하야 執拗하게徹頭徹尾 되는境遇에는 이것을 契機로 政黨本意의 擧國一致를 目標로하는政民聯携運動이 從來와는 形式으로再燃할 可能性도잇고 더욱 그것은 鈴木政友會總裁의引退問題에도 關聯되는바가 잇스므로 當時 政界情勢는 諸問題를中心으로 微妙한 動向을示하야 安達總裁가 던지려하는 一石은 如何한 結果를 招來할는지 그推移는特히注目되여잇다

朝滿間의三戰役
―參戰과中國傳統策―
(四) 文一平

己未參戰은 朝鮮人側으로 보면 以惠報惠이나, 明國人側으로보면 以夷制夷이다 壬辰에 救援해준 新恩을 明에게 갑흐려고, 己未에 參戰하야 新怨을 淸에게 맺엇다 舊恩을 갑는것은 可하되 新怨을 맺는것은 不可하니 異日의禍機가 此時로부터 胚胎하야 暗暗에 차칠 자라게 되엿다 그러나 中國人이 朝鮮으로써 滿洲를 牽制하려는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오 거의歷代의 傳統政策이다 멀리三國以前은 말하지 말지 高句麗가 亡하고 新羅半島와 滿洲大陸이 갈라진以來로만 본드라도 唐이 聖德王때 新羅를 달내여 渤海를 夾攻케한것은 너무나有名한 史實이어니와 宋이仁宗때 高麗를달내여 金國을 夾攻케하려다가 일은 일우지못하엿지만 그誘引을 알것이오 明이 世祖때 朝鮮을 달내여 建州衛를 夾攻케한것은 이미 말한바이다 그런데 明이 오늘날도 光海의 朝鮮을 달내여 後金을 夾攻케하니 이는대개 中國人이 唐宋明을 通하야 千有餘年동안 朝鮮을 달내여 滿洲를 牽制하야온 慣用手段이다 特히明代의對滿洲策은 女眞人의 分裂狀態를巧妙하게 利用하야 二百年間의平和關係를 支持하엿는데 明은 朝鮮과 女眞人의 交通에 對해서 兩者사이에 무슨密約이나 잇는가하야 언제나 猜疑의눈을 번적여 監視를 겨을리 아니하엿스며 그리하야 아못조록 朝鮮과 女眞人과의 接近하는것을 防止 또는 妨害하려 하엿섯다 가장 露骨의 一例를 들거데 언제인가 明國朝廷이 朝鮮使臣에게 對해서 女眞은 禽獸와 마찬가지니 絕對로 接近하지 말라는 意味로 忠告비슷하게 하엿다 그러나 그後明廷의 所爲를 보면 그말과는 正反對로 自己는 女眞과 接近하면서도 朝鮮만은 女眞에게 接近하지 못하게 굴엇고, 甚하면 接近하지못하도록 干涉까지 하엿스므로 世祖大王께서 한번은 크게怒하사 明의術中에 떠러저서는 안되겟다는말슴을 表示하섯다 明은 이처럼 用意周到하게 朝鮮과 女眞人사이에 接近을 防止또는 妨害하는 同時에 朝鮮으로써 女眞人을 牽制하려든 것이다 그러치만 李朝政府는 明의態度如何를 不計하고 歷史的으로 關係깁흔 對女眞策에 잇서서는 거의 變함이업시 把持해왓섯다 不得已한 境遇가 아니면 用兵하지 아니하고 대체로 그네首長들에게 官爵을 주어 懷柔하엿스므로 前述한바와 갓거니와 北平館은 女眞의 使節이 入貢하면 留宿하든 處所요 女眞의 首長이 來朝할때는 그禮遇가 아주隆崇하엿섯다 世祖年間에 建州衛의 名酋某가 京城에 來朝하엿슬때 그네를 宮廷에서 얼마나 歡待하야 歡心을 사려든지 도라가지 아니하고 京城에 永住하려 하는것을 겨우 慰送하엿다는 逸話까지 잇거니와 太祖大王께서도 맨처음에는 鮮官職을 榮譽로 녀여 自進해서 希求하던 女眞首長의 한사람이엿섯다 한다 明은 朝鮮이 女眞首長을 이처럼 誘致하며 또官職을 주는것은 不可하다하야 李朝政府에 抗議를 提出한것이 두번이 아니엿섯다 明은 朝鮮에 대까지 朝鮮과女眞의 接近을 妨害하엿섯고 또 妨害하려턴 것은 가릴수업는 事實이엿섯다 어떤때는 너무나 露骨에 지내처 朝鮮과 女眞의惡情을 挑撥하려한일도 잇섯다 淸太祖께서와 가티 明의所爲에對하야 憤慨하던 모양이다 撫順攻略하기 一年前에 朝鮮에 보낸 二度胡書에 두번다 明이 我兩國을 離間한다고 痛言한것은 이것을 決코 一時的巧妙한 辭令으로만 볼수업다 놀하치의 勢力이 차차 擡頭해감수록 明의 神經은 더욱더 尖銳化하야 朝鮮에 對해서는 놀하치가 금방 朝鮮에 侵犯하는것처럼 警告하고 또 놀하치에게 對해서는 朝鮮이 明과 함께 「놀하치」를 夾攻하는것처럼 風說을 流布하엿섯다 그러나 놀하치는 이 風說을 듯고 高歎하되 「朝鮮이 우리와 아무 仇怨이 업거늘 웨우리를 侵犯하야 먼저 釁端을 빙자집으려고하느냐」 하엿다한다 光海主께서도 「놀하치」의 實力을 잘 아는터이오 안호려고 몹시애를 썻스나 안으로는 黨臣의 盲目的名分論과 밧그로는 明人의 傳統的巧妙한 政策에 넘어가 그만 參戰의 擧에 出하야 禍因을 將來에 끼친것은遺憾이라 아니할수 업다。

無産黨進出 實로驚異
各黨派別得票數

【東京電話電通】今回의 總選擧에잇서 各黨派別得票數를 二十三日午後十時 內務省 警保局調査發表에 依하야보면

投票總數 一三、[illegible]票
有效投票總數 一三、[illegible]票

各派得票內譯

政友會	四、一九四、二三九票
民政黨	四、四一〇、七四二票
昭和會	五三一、七〇六票
國民同盟	四二一、八三七票
無産	六二八、八六八票
其他의團體	一八四、四四七票
中立	七四五、八〇五票

인데 政友의 [illegible]票를 突破한民政은 其得票數에잇서서도 二十一萬六千餘票를 리ー드하고잇다 無産黨이 六十二萬八千餘票를獲得

安部社大黨首
內閣參加實現乎

【東京電話電通】社會大衆黨이十八名의 議席을 [illegible]에서獲得한 [illegible]의進出에는 [illegible]가 모도다 [illegible]하고잇는데 [illegible]은 擧國一致內閣을 [illegible]하는데서 昭和會는 不自然하나마 이미三名의閣僚를 가지고잇고 安部[illegible]는 內閣審議會委員이며 秋田[illegible]氏도 本是同委員인 關係上社會大衆黨首 安部磯雄氏도 同會委員으로 [illegible]에 參加케하리라는說이 政府部內에 [illegible]하고잇다 岡田首相도 이에는大體로 贊成하는 模樣이므로 近近實現되리라고 [illegible]된다

交涉團體를結成 議會鬪爭展開
地方無産黨과中立의尾崎氏等合勢
社會大衆黨對議會策

【東京電話電通】總選擧結果 一躍十八名의 議席을 獲得하게된 社會大衆黨의 今後動向은 注目의標的이되여 잇는데 同黨에서는 來二十六日 常任委員會에 繼續하야 新議員會議를 開催하고 來特別議會에對한 對策을 決定하고 活潑한 議會鬪爭을 展開할 方針이다 그리고 現內閣에對하여는 敵前과 마찬가지로 依然 反對立場에잇는것은 自明이나 議會에 [illegible]하고 斷然 [illegible]를 [illegible]하는 點을 어데두든가 實로注目할 現象이다 그리고 此를前回 昭和七年二月에 比하면 政友會는 五十萬九千九百八十一票의減少 民政은 百萬七千百三十六票의 增加로 政民의 地位가 顚倒되엿고 無産은 四十五萬七千七票의 增加를 示하야 今後의 動向을 示唆하고잇다 內에 잇서서는 交涉團體를結成하야 新議員十八名외 [illegible]에 指目하고잇는바 地方無産의 加藤勘十(東京五區) 黑田壽男(岡山一區) 富吉榮二(鹿兒島二區) 大石大(高知一區) 中立의 松本治一郞(福岡一區) 小山亮(長野二區) 及 尾崎行雄(三重二區)等諸氏及 兵庫縣第三區의失格에依하야 昇格되리라고 觀測되는 河合義一氏等을 加하야 確實히 二十五名을 算하게되리라고 보아 [illegible] 活躍하리라고 觀測되는데 同黨今後의 動向, 特히 議會에잇서 活動은 各方面에서 注目되고잇다

僞瞞을暴露
擧國一致內閣의
全國大遊說計畫

【東京電話同盟】前回의總選擧에 比하야 二倍强의大躍進을 示現한 無産諸派中에도 十八名의新代議士를낸 社會大衆黨 에서는 同黨의 主義主張及 對議會策을 國民에게 徹底케하기爲하야 黨에對한 大衆의支援을 明確케하기爲하야 三月初旬부터 四月上旬까지 全國的 大遊說를 行하기로되엿다 그리고 旣成政黨만에依한 擧國一致內閣은 國民大衆全體의意見을 眞正으로 反映하는것이아니라 僞瞞的擧國一致內閣이라는 理由下에 來特別議會에서는 旣成政黨에對한 一大追擊戰을 敢行할터인데 今回의全國遊說에際하여는 이點을强調하야 主張하기로되엿다

第三國介入排除한 混合委員會設置
太田駐蘇大使와스外交次長間意見一致
金廠溝事件調査方針

【莫斯科二十二日發同盟】莫斯科駐箚日本大使 太田爲吉氏는 二十一日午後 外務人民委員部에 스토모냐코프次官을 訪問하고 金廠溝事件 調査委員會設置에對하야 協議를 遂한結果 結局 第三國의 介入을 排除하고 日滿蘇三國代表만으로서 混合委員을任命하야 愼重調査를 行케하기로 意見一致되엿다 委員會의 組織 委員定數, 會合期日等은 아직決定되지못하엿스나 日滿委員이나 蘇聯委員은 同數로하고 또 委員은 事件關係所屬部隊以外의 軍人을 任命하야 調査한結果를各其東京, 新京及 莫斯科各政府에 報告하야 最後的折衝에 資케하기로되엿다

齊齊哈爾蘇領事館 閉鎖準備着手

【齊齊哈爾二十三日發同盟】蘇聯政府는 奉天領事館閉鎖에 뒤니여 다시 齊齊哈爾領事館閉鎖準備에 着手한 模樣이라고 傳하는데 右에關하야 同領事쿠즈네조프氏는 二十二日 左와如히말하엿다

奉天領事館閉鎖에 關하여는 當館에도 公報가 到着하엿다 但 그他의 在滿諸領事館 閉鎖에關하여는 아직 情報가 업다 그리고 當館의 將來에 關하여는 말할수업다

日獨脅威를强調 赤軍優勢를賞讚
赤軍創設十八週年記念日에
莫斯科諸新聞紙揭載

【莫斯科二十三日發同盟】二十三日 赤軍創設十八週國軍記念日에 際하야 莫斯科各紙는 赤軍의 優勢를 賞讚하는同時에 日獨兩國에對한 自國의防衛必要를 力說하고 잇는데 모스코·데일리뉴ー스紙는 左와如히 極端의恐日 恐獨論을 揭載하야 注目을끌고 잇다

百三十萬赤軍은 日獨兩國으로부터오는 戰爭의脅威에 對한 蘇聯邦의 應酬에不外하는것이다 獨逸은 蘇領우크라이나를 包含하야 大獨逸을 建設하려고 企圖하고잇다 日本도 亦是 蘇領極東 자바이칼地方의 奪取를 夢想하고잇다 日獨兩國은 蘇聯邦뿐이아니라 世界平和에對한 脅威이다 그리고 共産黨機關紙프라우다紙는 日獨兩國에 陸海軍密約成立을 報道하야 日獨兩國間에 軍事的協力에關한 諒解가 成立된것은 事實이다 右諒解는 陸軍뿐이아니라 海軍에對한 相互援助도包含된것이다

特別議會는 四月二十日頃召集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來二十五日閣議에서 特別議會의召集期日及 會期를 決定하기로 되엿는데 大體로四月二十日頃에召集하되會期는三週間으로할模樣이다

八面鋒

◇ 安達國同總裁、總選擧後의 政局에 關하야 岡田首相에게 眞正한 擧國一致內閣을 進言。
◇ 먼저 安達氏도 入閣식히고 落選은해지만 政友의 鈴木總裁도 入閣식히고。
◇ 數로보아 第三黨이니 社會大衆黨의 安部氏도 入閣식히자는말슴인가。
◇ 安宇 注가진兩班이 두분식이나 臺閣에서게되면 글字만으로라도 安定은可企。
◇ 『最高의得點、最低의費用』이라는標語下에 一千五百圓豫算以內로 選擧會計算書를發表。
◇ 最高得點者의하나인 町田民政君은 發表할勇氣가 업는가。

人事·集會

▲渡邊學務局長＝二十四日午後十時五分 京城驛發慶南에出張
▲池田警務局長＝忠北出張中二十四日午後三時二十分歸京
▲許 璡氏(定州實業家)廿四日入京人事次 本社來訪

佛蘇援助條約
近日中批准完了
獨逸은로카르노條約의違反이라고
라인再武裝敢行意思

【巴里二十三日發同盟】昨年五月에 調印된 佛蘇相互援助條約의 批准에關한 下院의討議는 二十五日에 續行할터인데 同日은 플랑당外相도 下院에出하야 條約案을批准할 必要가잇다는 所以를 力說하고 下院도 이에繼續하야 近日中에 批准을 完了할 터인데 同條約의 批准에伴하야 獨逸政府는 佛蘇條約은 로카르노條約違反이라는 口實下에 라인地方의 再武裝을 敢行하게될터로 그推移는 注目되여잇다

共産黨上院議員 又復當選
佛國左翼大進出

【巴里二十三日發同盟】共産黨上院補缺選擧에 二十三日 크라마뉴氏는 二十三日 上院選擧에 際하야 세ー느縣에서 選出되엿다 따라上院에잇서 共産黨議員은 이에上院에 席을가진 黨首카지안氏를 加하야 合計二名이되엿는데 세ー느縣에잇서 上院選擧候補者가 極右黨의 壓倒的多數를 占領하고잇는 巴里市參事會員과 縣下에잇는 세ー느縣 各市會議員及 會議員에依하야 자못問題되여잇스므로 크라마뉴氏의 當選은 左翼의 大進出이라고 觀測된다

000310

大阪着名問屋案內

蓄音器와、レコード
附屬品製造卸問屋
大阪市西區靭本町五丁目十七番地
日本ビックホン蓄音器商會
(同業者에限해 カタログ進呈)
電話西六九一三〇番 振替大阪三二八三〇番

合夏物 羅紗洋服荷揃
大衆向 三ツ揃、レインコート 詰衿上下服、ズボン
卸問屋 田中宇商會
大阪市東區谷町二丁目十八番地
店頭卸에限해定價表進呈
電話東三〇三五番

諸組紐 ゴム紐 テープ アトラス印 毛糸 ミシン糸 絹カード 各種縫糸 編棒
發賣元 問屋
岩本作治郞商店
大阪市南久寶寺町一丁目
カタログ進呈
電話船場五〇二九 振替大阪三三〇七五

品製級高實確表驗試格規
比重·引火点·粘度·蒸發量·絕緣耐力·酸化·硫黃·疑固点
三井物産株式會社 燃料部特約
米國コンチネンタルオイルコンパニー特約
淺野物産株式會社礦油部特約
米國シンクレア石油會社特約
スポーツ印
機械油總發賣元
松本監製油大阪販賣所
大阪市西區京町堀上通三丁目
(カタログ送呈 乞照會)
電話土佐堀六壹一〇二 振替大阪五壹一〇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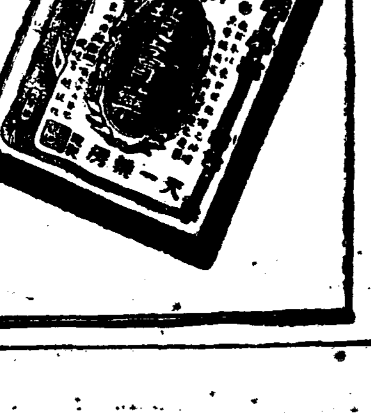
株式會社 躍進하는 日本興國洋裝社

全國의洋服愛用者各位에! 實生活에 便利하고明朗嶄新한 洋服을입으시도록하기爲하야 赤誠의努力을밧치고잇습니다
株式會社日本興國洋裝社는 全國에서非常한 愛護를밧고躍進에躍進을거듭하야 昨年과가튼해는各地에서驚異的多數注文을밧고 一部의분에게는注文에 應치못하게된것은참으로 말할수업는 遺憾이라고生覺하는同時에여러분의愛顧에는 感謝할박게업다고 生覺합니다
今春은모든注文에應코저 株式會社組織으로變更하야工場設備도擴張하고洗練된 技術者를充實히하야 다시一層着用價値를놉히는洋服을製作하는데大方針을確立하고 研究을더하고잇스니 今年春秋服近日新見本을持參하야相議하는本社外務員에用命하여주십시요
株式會社 日本興國洋裝社
本社·大阪
大邱府南城町一二二
朝鮮注文取扱監督所

副業本業
自宅で儲かる
●事務製造者募集
가장安全確實하다
マルハマ紙工業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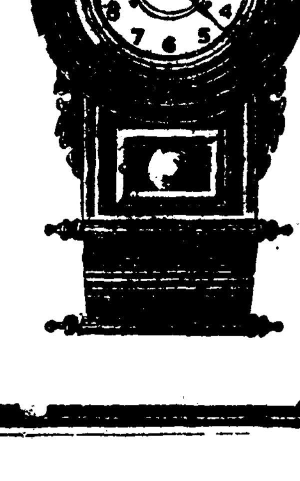
好職業

腫氣에 趙膏藥



主治効能
모든종창부스럼 모든습종
유 종 담 종
담 전 나는 매 발 지
구 창 낙 상
어 혈 전 비
요 통 귀 라 무 명 종 독 증
(종 면) (머 거 름) (종 유) (종 문) (발 가 락)
定價 五錢·十錢·二十錢
發賣元 京城府鍾路 天一藥房
本舖 天一靈神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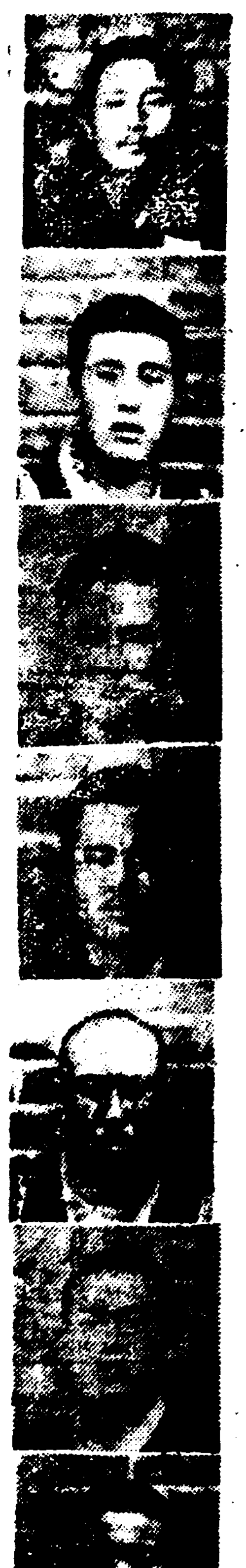
Meiji


絕對安心할수잇는!
明治の掛時計
正確 時示
價格 低廉

金應洙等十八名은 覆審서도死刑言渡

許玩珍、金今南兩人死刑이無期로

間島共産黨事件覆審判決



◇出廷한重要被告 上으로부터—權泰山 金東弼 高河鯨 金應洙 李鍾立 劉泰順 金鳳乭

간도공산당사건의 관계피고 이십팔명에 관한 복심공판은 이십사일 오전 열한시십오분에 경성법원특별법정에서 경관간수사십여명의 철통가튼 경계가운데 개정되야 적(赤)재판장으로부터 판결언도가 잇섯는데 김응수(金應洙)등 열여덜명은 일심판결과 가티 사형으로 허완진(許玩珍)등네명은 무기징역 그밧게원용학(元容學)등네명은 징역십오년내지 징역삼년의 유기징역의판결을 언도하엿다 이가운데서 허완진(許玩珍)김금남(金今南)량명만은 일심판결보다 경하게무기징역으로되엿다 사형판결피고는 한명식 법정에 불러드려언도하야 형무소로돌려보내엿기때문에 판결을 끗내기까지 전후두시간이나 걸렷다 오후한시 십오분에 전부의 언도를 끗내엿다(括弧內는一審判決)

▲金應洙(三四)死刑(死)
▲朴東弼(二八)死刑(死)
▲周現甲(三三)死刑(死)
▲朴金哲(三二)死刑(死)
▲金光默(三二)死刑(死)
▲朴翼燮(三〇)死刑(死)
▲劉泰順(三〇)死刑(死)
▲李東鮮(三一)死刑(死)
▲高河鯨(二七)死刑(死)
▲曹東律(二八)死刑(死)
▲閔昌植(三一)死刑(死)
▲金鳳乭(二四)死刑(死)
▲金龍震(二九)死刑(死)
▲李鍾立(二七)死刑(死)
▲金東弼(二七)死刑(死)
▲許玩珍(二七)無期懲役(死)▲金今南(二七)無期懲役(死)▲池蓮浩(三一)死刑(死)▲權泰山(三三)死刑(死)▲盧昌浩(二七)死刑(死)
▲東柄哲(三六)無期懲役(無期)▲安應孫(三四)無期懲役(無期)▲元容學(二七)懲役十五年(十五年)(但未決通算八百五十日)▲李昌瑞(三四)懲役十五年(但未決通算八百五十日)▲朴仁煥(三六)懲役十三年(但未決通算八百五十日)▲金成孫(二九)懲役三年(但未決通算八百五十日)

一名式呼出宣告

被告마다騷動懸鬧

看手六七名式이合力하야艱辛制止

傍聽人도途中에落淚退廷

◇……법정으로드러가는피고……◇

간도공산당사건의 피고이십륙명에 대한 판결은 보통사건과는 다르게 사형판결을 한 피고는 류치장에서 한명식 법정남쪽문으로부터 불러드려서 재판장으로부터 판결을 언도한다음에는 법정북문으로 내여보내여 거게서 대령하고잇는 형무소자동차두대로 번가라 실어서 바로 서대문형무소로 호송하엿기때문에 사형판결을 바든 피고들에 대하야는 십오분혹은 이십분만에 한명식 판결을 언도하게되엿다 사형판결을 바든 피고 가운데 박동필(朴東弼)은 재판장의 언도를 듯고서 『이자리에서 죽여라』고 고함을질르며 데굴데굴 뒤구럿스며 주현갑(周現甲)은 사형언도를 듯고서 선우슴을 우스면서 『×× 운동자를 사형에 처하드라도 ×× 운동은 죽이지 못하리라』 하고 중국공산당××를 불럿스며 김광묵(金光默)은 극형자(極刑者)가 몃명이나 되는지이 자리에서 알려달라 하엿는데재판장은 이다음 판결문이 전달될터이니 그것을 보면 알게될터이라고 대답하엿다 민창식(閔昌植)은 사형언도를 듯고서 목메인소리로 『××!』를 부르면서 나갓고 지련호(池蓮浩)는 『이것이 공판이냐 ××이지』하고 『콤인테른』과 중국공산당××를 부르고 또자동차에 실리기까지 작구 조선×××××를 련다러 불럿다 그러고피고들가운데 공판때마다 제일소동을 이르킨 권태산(權泰山)은 언도를듯고서 신엇든 집신짝을 버서서 재판장에게던지며 국제공산당 중국공산당××를 소리질러 부르고 뒤구럿다 이상과가티 소동을이르킨 피고들은 모다 간수칠명식이 달려드러서 두손을 뒤로틀려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근근히 자동차안으로 실어갓는데 그들은 자동차에 실려가면서 그냥소리를 질럿스므로 간수들은 손으로 입을 트러막는등으로 비록한명식 따로 따로 언도를 하엿지마는 일즉이 보지못한큰 소동을이르켯다

이날 방청석에남자 네명과녀자두명의 방청인이 잇섯스나사형판결을 받는피고들의 날뛰는광경을보고 모다 손수건으로눈물을 닥그면서 중도에 퇴정해버렷다

〃百萬圓짜리硯石〃

李王家傳來의寶物이라속여

五千餘圓을詐欺

경상북도고령군 우곡면 도진동(慶北高靈郡牛谷面桃津洞) 삼십일번지에 거주하는 무직자요사기전과수범인 홍우(洪雨)(三)는소화팔년십이월 사긔죄로 대구형무소를 만기로출옥한후 고향으로도라가잇든중 그의사촌동생인 홍재근(洪在根)의소유인 벼루(硯)한개를리용하야 거액의돈을 사기코저 생각하고 상경하야 시내모 고등보통학교의교장을 차저보고 이벼루는 룡현(龍硯)이라하는리왕가에전해 내려오는 백만원의 가격이되는보물인데 이것을 오십만원에 팔도록하여주면 학교에 이십오만원을 기부하겟다고하야 교장을밋게한후 교장의소개로부내의 모부호들을차저 팔려고하엿스나 뜻대로되지안허 방법을곳치어 일본내지로가서 시내에거주하는 여러사람들에게이 벼루를일본내지까지가서팔면 백만원이나될터인데 지금 려비가 업스니 려비를주선해달라고하야 여러사람들에게 거액의돈을 편취하엿다하며 그중 시내 안국동팔십오번지의일호에 거주하는 유명헌(尹明憲)=假名=으로부터 오천원이나 편취하엿다한다 그는 이와가티 편취한돈으로 주야로 기생집에 파뭇치어 유흥하든중 지난이월십일 본정경찰서원에게 체포되엿다한다

시어머니등살에

약먹고죽은며누리

『나죽은시체는찌저먹든지……』

몸서리칠그의유서

가족제도가나흔비극

흔히 조선가정에서 볼수잇는시어머니와 며느리사이의 갈등—그때문에 금술조튼 부부간의 불화와 아울러이러난『인테리』녀성의자살비극이 잇다—

시내서대문정(西大門町)이정목 이백륙십이번지 팡어가 전오용(全吾容)(二〇)의 안해리수경(李秀卿)(一九)——이상 어느것이나가명——은 지난이십삼일밤아홉시 시외아현리(阿峴里)사백칠십번지의팔십구호에서 만흔분량의몰핀을 먹고 신음하는것을 집안 사람이 발견하고 곳 죽첨정(竹添町)삼정목에잇는 고려의원(高麗醫院)으로 떠메여다가 응급치료를 햇스나 끗내혼수상태에 빠저잇다가 마츰내 이십사일 오후한시 절명되고 말엇다.

그가 자살하기까지에는 실로 눈물겨운 사정이 숨겨잇슬뿐 아니라 조선가족제도의 결함을 말하는것이 잇스니 즉리수경은 열아홉살때 압서적은 전오용에게 시집을간 이래 금실조케 살어오면서 한때는 시내 어떤 신문사에 여기자로 잇든일까지 잇는터인데 항상 그의시어머니 최씨(崔氏)가 아모까닭업시 구박을 심하게해서 이를 늘비관하여 나려오는중 요지음와서는 남편되는전오용이가 첩을어드면서부터 남편보담 시어머니의 학대는날로 자심해가므로 그는독한마음을먹고 지나간날 네번이나 자살을 꾀햇스나 모다 뜻을못이루고 나려오다가 마츰내 한주일전남편이부산(釜山)지방으로가게되고 업는동안에 자기친정으로 가서 드듸어 자살하게된것이다 그런데그가 어째서 죽지안흐면안되엿든가?는 그가 시어머니되는최씨에게 부친 유서에뚜렷하게나타낫스니 즉『내가죽는것은 시어머니 당신때문으로 나죽은후에 시체는아모도 처치못할것이니 당신이 내시체를 뜻터먹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저주의 몸서리칠만한 글씨구로 보아 얼마나 그가 시어머니최씨에게 대한원한이 매처잇든가를 알수잇다한다.

漂流船中에怪奇

동강동강난船夫屍體

痴情關係로本夫에게被殺?

犯人은市內에潛入?

지난달 이십사일에 복정현서전중(福井縣西田中)경찰서 관하의 해안에 원산토목출장소(元山土木出張所)『마-크』가 달려잇는 단평선(團平船)한척이 표착되엿는데 배안에는 아모도업고 머리와 동체(胴體)와 손발이 절단되여잇는 죽은지 일개월가량된 시체하나가발견되여 경찰에서 극력조사한결과 조선은행권(鮮銀券) 석장이 떠러저 잇는것을 단서로하야 조선남자임을 추정하고 경무국에서 전조선각도에 조사한결과 그 피해자가 전라남도목포(木浦)사는 어부로판명되엿다 그는작년 ○이십칠일경에 그의동무와가티 배를타고 청진(淸津)으로가서 어업에종사하다가 그동무의 안해와 치정관계를 매저오다가 그사실이 본부에게알려저서 그동무인본부가 드듸여 그와가튼 참혹한 범행을한것인데 범인은 그동안 청진에서 원산(元山)을 거처 경성시내에잠입한 흔적이 잇서 방금각경찰에총출하야 엄중수사중이다

出家한老婆가

電車自殺未遂

이십사일 오전영시삼십분경 시내인의동(仁義洞)부근 전차『레-루』우에 태연자약하게 안저서 자동차 지나가는것만보면 자살하려고 덤비여드는 노파가잇는 것을 소관동대문서에서 보호중인데 그는 주소미상(未詳)최종식(崔宗植)의 어머니 김씨(金氏)[illegible]라는데 아들과 싸우고여러달전에 집을 떠나 거리로헤메이고 다니든터인데 이날밤은 무슨생각으로인지 불연히 자살하려고 하엿든것이라고한다.

老婆가飮毒

이십사일 오전네시경 종로(鍾路)오정목 이백칠십이번지 리귀룡(李貴龍)의 모친리씨(李氏)(五七)는 가성가리(苛性加里)를먹고자살하려고 하다가 집안사람에게발견되여 뜻을이루지 못하엿는데 그이면에는 복잡한 가정관계가잇는듯 하다하며 생명에는 별반상관이 업스리라고한다

千里他鄕逢故人

첫人事가 돈詐欺

고향을 산동성(山東省)에 두고 현재 함흥부일출정(咸興府日出町) 륙십이번지에사는 부모와 형이잇는 중국소년 소휘성(蕭輝盛)(一五)은 볼일이 잇서 혼자 함흥에서 룡산으로 올녀고한것을 역원이잘못듯고 부산(釜山)까지의 표를팔엇든바 그대로 기차를탄 이소년을 마츰차속에서 가튼 산동성에 고향을둔 중국사람 필가증(畢可增)(三)에게 이와가튼이야기를 하엿더니 그가 표를 물리도록하겟다하야 이십이일 오후두시팔분 룡산역에 도착하야 상원칠십삼전을 거슬러 바더 가지고 소년을 역에서 기다리게하고 자긔의갈곳인 인천행차를 탈려고 푸랫트홈 부근을돌다가 순사하던 순사에게 거동수상한것이 피여 데려다 취조한결과 전기범행이폭로되여 돈은소년에게 돌려주고 방금 그는 룡산서에서 계속취조중이라한다

西班牙에

大洪水

【마드리드二十二日發同盟】 서반아(西班牙)각지는 최근련일 계속해나리는 비로피해가막대한데 이십이일『마드리드』에 달한정보에의하면『세비리아』와그부근일대에 홍수가 더욱심하야 통신과교통이 모다막히고 말엇기때문에겨우 비행기로 식량을 보급하여왓스나그나마 폭풍우로 말미아마 아조 못하게되엿다.

집떠나간 수효는 일만이천호나되며 또『자모라』『브라드로리』두도시도 개울물이 범람해서 수해가 막대한중『브라드로리』에 잇는『세르반테스』기념관에서는 가구、즙기、장서 이천권등이거지반 물에잠겨서 버리게되엿다

和平堂懸賞抽籤

『태양조경환』(胎陽調經丸)『자양환』(滋養丸)발매로 유명한 시내화평당약방(和平堂藥房)에서는작년십일월 일일부터 올일월삼십일까지 사이에 현상모집을 햇든바 지난이십일 오후네시 이것을 추첨한결과 총응모가 일천사백칠십이명중 정해자백십구명속에서 일등열사람 이등스무사람 삼등마흔사람이각각당선되엿다한다.

天氣豫報

小低氣壓은 木浦압바다와 江原道압바다에잇고 高氣壓은北中으로부터 朝鮮으로퍼지고잇스나 그勢力은 弱하다 日本方面도 氣壓의配置가 不安定다 滿洲와北朝鮮은 晴、西岸은小雪、其他는曇、日本內地도大概흐리다

豫報 京城地方=今夜는晴、明日은曇 京畿全道=同右

昨日最高 零上四度九分 最低 零下三度四分 今日正午 零下一度一分

運動競技

松都高普崔君 卓球優勝

全朝鮮大會終幕

朝鮮卓協後援의 第十五回全朝鮮男女卓球大會男子部競技는 二十三日午前十時五十分부터 來靑閣에서 京鄕各地의 百三十八名選手가 參加한가운데열린바 다음과가튼戰績으로 開城松都高普校의 崔根恒君이 諸强豪를 물니치고優勝하엿다(寫眞上은 崔根恒君、下는 文錫璜君)

【第四回戰】
金相鎬(總府)3…1吉　田(仁川)
岡　田(鐵道)3…0中　原(道高)
閔寬植(一高)3…2濱　永(善隣)
崔根恒(松高)3…0丸　山(朝火)
早　瀨(總府)3…0植　松(鐵道)
邊龍煥(總府)3…1許　準(松高)
李在雨(總府)3…2洪允基(工科)
周鐸洪(鷄林)3…1金容謙(總府)
文錫璜(開城)3…0崔炳夏(基青)
曹明煥(總府)3…0李德煥(雅樂)
田　中(總府)3…2早　瀨(崇專)
尹同燮(總府)3…0東　山(鐵道)
深　堀(明星)3…2濱　沼(道商)
李東俊(總府)3…1李順佑(開城)
金龍雲(正文)3…1松　尾(專賣)
朴在徹(總府)3…0岩　井(道高)

【第五回戰】
金相鎬(總府)3…1岡　田(鐵道)
曹明煥(總府)3…0田　中(總府)
早　瀨(總府)3…1邊龍煥(總府)
崔根恒(松高)3…2閔寬植(一高)
深　堀(明星)3…1李東俊(總府)
文錫璜(開城)3…1尹同燮(總府)
朴在徹(總府)3…1金龍雲(正文)
周鐸洪(鷄林)3…2李在雨(總府)

【準準決勝戰】
崔根恒(松高)3…1金相鎬(總府)
朴在徹(總府)3…0深　堀(明星)
文錫璜(開城)3…2曹明煥(總府)
早　瀨(總府)3…2周鐸洪(鷄林)

【準決勝戰】
崔根恒(松高)3…0早　瀨(總府)
文錫璜(開城)3…1朴在徹(總府)

【決勝戰】
崔根恒(松高)3…1文錫璜(開城)

和蘭하키를이겨

【암스텔담二十三日發聯合】日本올림픽代表 氷上하키-軍은 二十三日和蘭부루-스軍과對戰한바 四對三으로부루-스軍을이겻다

日本4 {1…1 / 2…2 / 1…0} 3부루-스

日獨氷上第二日

日本軍敗退

【함부르그廿三日發聯合】當地에서 열린日本올림픽選手招待스피-드、스케-트大會 第二日에는 一千米와 一萬米릴레-를 擧行한바 兩日의 合計得點은 獨逸三十二點 日本三十七點(註得點은 一等二點 二等一點으로하고 點數가적은편이勝利)로 獨逸이이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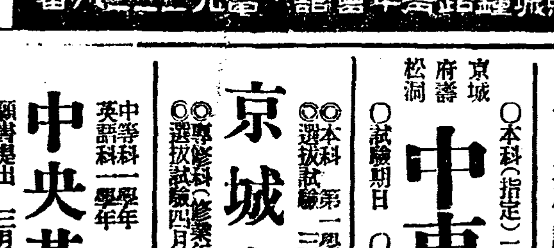
【一千米】▲第一組 1마이(獨)一分四五秒 2中村(日)一分四五秒一 ▲第二組 1레-네팔트(獨)一分四九秒二 2南洞(日)一分四九秒三 ▲第三組 1李聖德(日)一分四三秒九 바르보(獨)一分四四秒四 ▲第四組 1河村(日)一分四五秒九 2자메스(獨)一分四五秒九 ▲第五位 1산드나-(獨)一分四三秒八 2石原(日)一分四三秒九 그리고 一萬米릴레-(兩國五名式)는 一米差로日本軍惜敗하엿다

諾威氷上日本에遠征

世界最强을자랑하는 諾威氷上스피-드軍은 日本遠征을 計劃하고 벌서부터主將 바랑그루-드」選手를비롯하야 스테크스루-드、헬드젠以下諾威一流選手를 網羅한遠征團을組織하고 올림픽中間年인 一九三八年에實行키로되여 具體案을作成中에잇다

活命水 同和藥房

平壤 高級絹織專門 廣林商會

醫學堂眼鏡店

檢眼 無料
洪錫煥博士擔任 京城鍾路靑年會館·電光三一二八番
主任 曺秉學

型錄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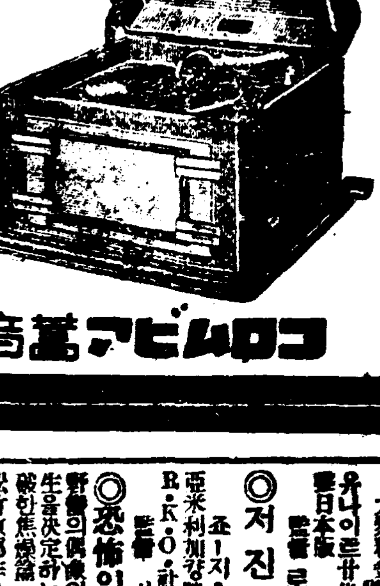
恩給 立替低利整理次借換歡迎 京城光化門通一四七(光化門郵便局前米店後) 朴商會

鳥捕網
極上麻 絲投網 捕鳥網 五分目 四分目 三間 二尋 二尋 金八圓也 金十圓也 金參圓也
定價表進呈
京城明治町一丁目派出所前 漁具卸商 秋岡商會 電話本局(2)四三九〇 振替京城二、一五六

可認 電醫師責任養成(學則進呈)
平壤高等電醫學院
平壤府磚九里七四

仕立好評價格低廉 通信販賣信用爲主
營業科目 羅紗製品部 綿布作業服部 男女子供服部 防水雨衣部
洋服仕入東京으로
既成服店、百貨店向
東京神田區岩本町七ノ一〇
金田商店
電話浪花(67)四六三八番 各部地見本請求次第發送

근질근질가려운데 むづかゆき時に
피부에차-지이삼회 皮膚チヤージ二三回
침투료법으로 滲透療法で
압호지안코더럽지안코속히 痛まず汚れず早くよくきく
듯는피부차-지 皮膚チヤージ
약가삼십전오십전일원이원 代卅戔五十戔一円二円



普成專門學校生徒募集
一、募集定員 法科、商科各約百名
一、出願期 昭和十一年三月二十七日限
一、試驗日時 昭和十一年三月二十八、九、三十、三十一日午前九時
其他詳細來問(京城東大門外安岩里)書問要郵券三錢

京城府壽松洞
中東學校生徒募集
○本科(指定)一年約百名 ○豫科(本科一年程度)約二百名 ○速成科(普校五六年程度)約八十名
○試驗期日 ○本科三月十九日、二十日 ○豫科三月廿三日廿四日 ○速成科四月一日
出願期日各科共試驗前日까지

京城女子商業學校生徒募集
◎本科第一學年 百名 出願期限 自二月十日至三月九日
◎選拔試驗 三月十一日、十二日二日間
◎專修科(修業年限一年入學資格 女高普又는高女校卒業者)五十名出願期限自二月十日至四月十日
◎選拔試驗四月十一、十二日二日間(詳細來照) 京城府壁志洞八〇(電光一五八六、一三九六)

中央基督敎靑年會學校生徒募集
中等科一學年 約二〇〇名 英語科一學年 五〇名
鐵工(機械)科、木工(建築家具)科、中等科、英語科二、三學年補缺生若干名
願書提出 三月二十一日까지 英語科四月七日까지
考査日 四月二日 詳細本校에問議하시요
京城鍾路二丁目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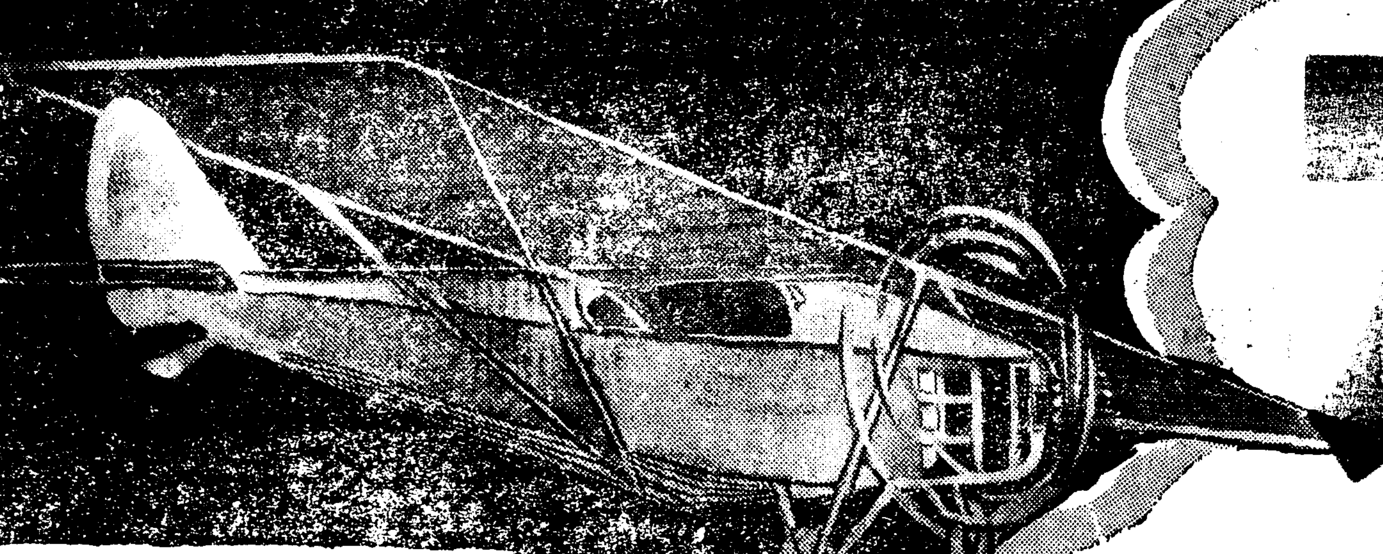
現代는知識의戰爭이다 中學程度의 學力이必要하다
中學校에못간분은速成中學講義錄으로獨習하라
會長은天下에 高名한東鴨中學校長遠藤博士 敎授法은 本會獨特한直感式알기쉽고자미나는講義로
學校에가는一個月의費用과一個年의短時日로中學全科를習得하게된다

당신은 편지를 척척잘쓰십니까
近者好評의…便紙硏究會에서는新時代에適應한新講義로短時日에便紙達手가되도록한다 詳細는 只今곳『見本送付하라』고(東京神田區三崎町=手紙硏究會)에 葉書로申込하면說明書無代送呈함

아무리하여도
中學만큼은
안마치면안돼
事務의餘暇에
詳細는 只今곳(朝鮮日報에서보왓다 說明書보내라)고 東京神田三崎町日大通
帝國中學會에
葉書로申込하면 見本付說明書無代送呈함

合理的이오興味잇는길가르침
펜字熟達法
펜字熟達의第一必要條件이되는透寫式練習法에依하면容易히 短時日에日本文字、英字、數字等이 金字로 훌륭하게씨워진다 只今곳『朝鮮日報紙上에서보앗다 說明書를付送하여주시오』라고 葉書로申込하면詳細한說明書를無代로送呈함 東京神田區三崎町 ペン習字硏究會

二月二十五日부터三日間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繼續映寫
大衆料金 階上三十錢 均一 階下二十錢
◎저진拳銃 유나이트社 世紀映畵社特作全發聲 監督 로-랜드·부라운
◎恐怖의불꼿 조-지·방크로프트主演 亞米利加映畵第一稀有新藝術 R·K·O 社超特作라지오映畵 監督 바-든·구레논
◎木曾の紅笠 松竹京都作品 監督 大曾根辰夫
野性의偶像의祭典으로大衆속에서死生을決定하는白人男女의死線突破의焦燥感 幾多의情熱을讚辭成하는人間愛欲의赤裸裸한一幅의情熱詩!!
仁寺洞 朝鮮劇場 電光三六一



속병 체증엔 겡오ㅣ를쓰시오 (元王)

◎만금성위장가다루 (胃腸加答兒)
배가장아푸고 설사가나고 속이불편하고음식맛이업는분은 겡오ㅣ를 쓰시오

◎위 약 (胃아도니ㅣ)
음식이 잘언치고 칭이괴이고 음식맛이업고한증세에 겡오ㅣ를 쓰시오

◎변 비 (便秘性腸加答兒)
뒤가조하고 순하지안코 배가장불편하고 두통이나고 기운이업는증세에 겡오ㅣ한제로잘낫습니다

◎위확장 (胃擴張)
음식을먹어도 헛헛증나고배가부르고가슴이아푸고 몸이마르고설사가나고 음식을대하면며기실코한증세에 겡오ㅣ를쓰시오

◎위산과다증 (胃酸過多症)
음식이 내릴때가되면 가슴이아푸고 신물이올나오고 가슴이쓰린증세에 겡오ㅣ를쓰시오

◎위괴양 (胃潰瘍)
물만마서도 도로올나오고 가슴이아푸고 아모것도 먹지못하고 파리한증세에 겡오ㅣ를쓰시오

◎위하수증 (胃下垂症)
헛배가부르고 밥이나리지안코 가슴이갑갑하고소화가안되는증세에 겡오ㅣ를쓰시오

◎위장결핵 (胃腸結核)
배가항상아푸고 몸이파리하고 구미가업고 설사가나고뒤에 피가나오는증세에 겡오ㅣ를쓰시오

식욕부진 (食慾缺乏)
음식맛이업고 기운이업고 소화가안되는분은 겡오ㅣ를쓰시면 살이찌고 음식이 쑥쑥잘내리오

효력최극상 세계에 유명한우에 페제도만이들엇고 신발명고귀한약이 더욱만히드럿답니다

만일무슨약이든지 이삼일쓰시와 특이성의체질(特異性體質) 노병에안맛거나 광고와틀니는점이잇거나 마음에안맛거나 특효가업거든 약을곳보내시요 청구하시는대로하여드리겟습니다

◎기관의기계가 잘돌아야 최대급행렬차든지 비행기든지속녁을낸다

▲流線型(류선형)스피ㅣ드時代(시대)▼

무병이 장자오신의무엇이라 몸이불편하면 왕금보옥이 태산갓튼들무엇하며 속이압푸면 진수성찬이압해줄비하야도무심하다 음식을먹은것이 잘소화가되여야 음식이맛도잇고 먹은것이살로가게된다 사람의위장은 기차나 비행기의기관과 다름이업다 위장이든든하야몸이 튼튼하고 정신이조코 만병이호려지고 무슨활동이든지할수잇다 세상에병으로 고생하는분은 모다 처음에는 위장병이원인이되는것이다 위장이약하야 속병이니소화불량이니 체중이니 적이니 가심아리니 헛배가부르니 냉배를알는니신물이 올나오느니하야 고생하시는분이 위산이나 소다나 약재료가납버서 회리나만케하야 파는약갓흔것을 써서점점 위장을약하게하고 중독이들고 다시도지고 약만떼면 또 아푸고하야 돈만허비하고 약을언제든지 떼일줄모르고 세상을비관하시는분은 신성당겡오ㅣ를쓰시면 아모리오라고 위중한속병체중이라도 잘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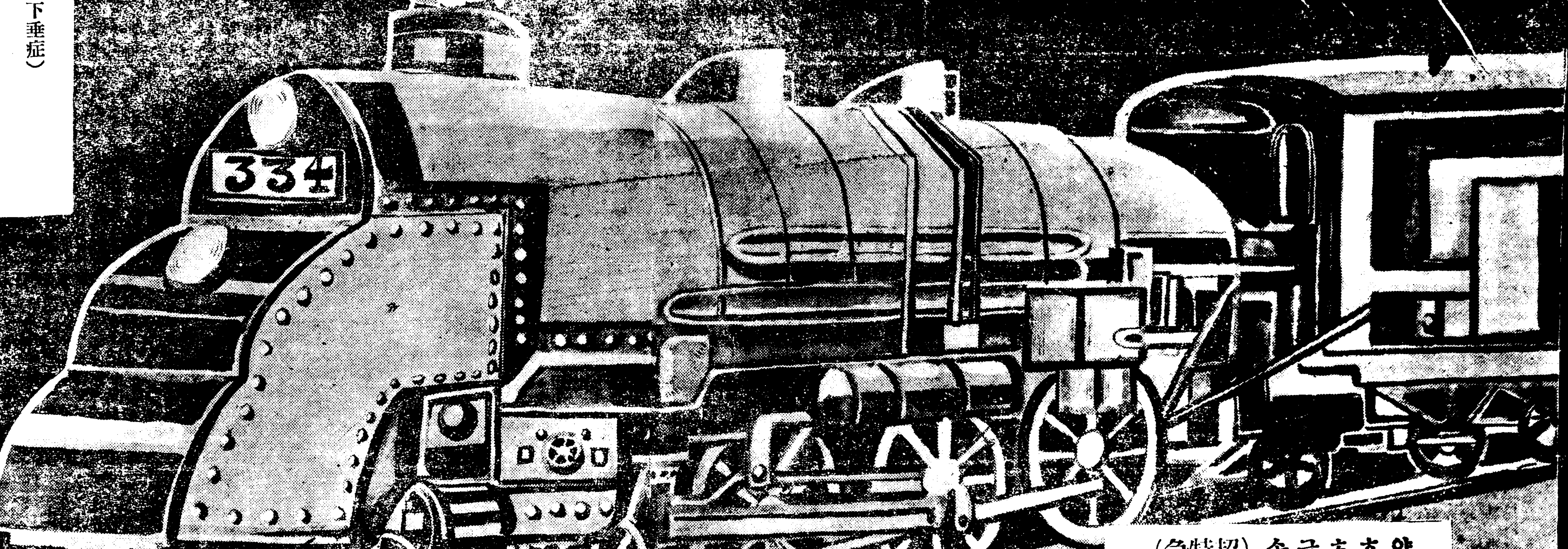
약갑		
완고용(頑固用)	삼 원	지방송료선금
중증용(重症用)	이 원	이면 십오전
경증용(輕症用)	일 원	대금인환 삼십오전

(경성서대문신성당)

京城西大門電停側(五)제일큰신축백옥양옥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株式會社

代表電話光三三四・振替京城四九五〇番



약효초급속 (超特急)

이감사장을보십시오약효증명

000311

수년적병이겡오ㅣ — 이주일에나어

다른약을아모리써도낫지안트니겡오ㅣ — 를삼사일쓰고나어

고통하든체증이겡오ㅣ — 일주일분에특효

백약이무효하드니 — 겡오ㅣ로무병인이되여

겡오ㅣ를쓰고효력을보아 — 사방에서주문을부탁

어렷슬때부터고생하든체증이 — 겡오ㅣ한제로낫소

수십년별별약을하야도안낫드니 — 겡오ㅣ한제로낫소

四十七세에비로소겡오ㅣ — 라는선약을맛낫소

삼년고통이겡오ㅣ — 한제로거근

오륙년된체증이겡오ㅣ — 일주일분으로낫소

겡오ㅣ한제로체증이낫고 — 몸무게가늘엇소

겡오ㅣ는 — 신효백%

겡오ㅣ로속병이낫고식욕이 — 늘고소화가써잘되오

십년이나체증으로고생하다겡오ㅣ로 — 건강한행복을누리오

家庭

봄이오니 김치맛이 간다
밥상에 오를 봄나물
찡그렷든남편도 화기가도는 냉이、달래、씀바귀

요사이는 한겨울 먹든 김장도 이제 와서 구진해저서 맛이 떨어지고 다른 기롭진 반찬도 구미를 돕지 못 합니다。그러니까 사랑랑반은 밥상만 밧고 안즈시면 공연히 상을 찡그리고 숫갈을 레석이십니다。안악네는 어쩌란 말인지요? 딱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한편 도리켜 생각하니 벌써 냉이도 나고 소로쟁이도 나고 달래도 나고 봄나물의 선봉들이 다 나와 잇습니다。이런 것을 사다가 한번 별미의 반찬을 맨들어 노항든들 사랑랑반의 입이 함화만큼 벌어 지섯슬찌도 모르는 일입니다。그러치 안습니까? 곳 사다가 한번 해노하 보십시요。

냉이나 소로쟁이나 아죽도 언흙이 무터 잇스니까 그것을 정히다듬어 잘씻어야 합니다 아조찬 물로씻어서는 그흙이 잘 떨어지지 안코 또 넘어 뜨거운 물로씻다가 미리 익히어버리게 되니 그저 미지근한 물로 멧번이고 씻는것이좃습니다 그러나 냉이에서는 아모래도 흙내가튼냄새가납니다 그러키때문으로 토장시국에 끄리는것이 제일 좃습니다 냉이시국에는 모시조개가 본격이요。모시조개도 껍질을 잘씻어서 껍질채 너허서 끄리고 껍질채 떠노하야 하지요。물론 모시조개를 넛는다고 해서꾸미를 너치 말란 말은 아닙니다。냉이시국은 다른토장시국과도 달러서 만일꾸미를 너치 안 햇다가는맛이 업서 먹지를 못하게될찌도 모릅니다。

×

냉이나 소로쟁이시국이외에 달래 장아찌를 조치 안코 씀바귀나물인들 조치안습니까? 달래나 씀바귀나 흔히 못자시는 분들이 게시오나 그런 떠까다로운 식성으로는 봄의 별미를 태반 맛보지 못하고 사시는 폭이올씨다。

달래장아찌。하얀달래뿌리를 사다가 그냥 간장에 저리어도조코 좀 잘게 썰어서 저리더라도 무방합니다。또 간장을 만히 부어서 달래간장이라고 간장으로 먹어도 훌륭합니다。

씀바귀 나물。좀 울려내뒤 초와간장을 치고 고추가루를 타거나 고치장을 풀어서 부칩니다。넘어 울그면 심심해 못 쓰고 아조 안 울그면 써서 못 쓰는터로 그것을 울그는데 솜씨가달렷습니다。

×

그뿐이 아니라 몸숙도 조하하는 양반들은 아조 조하합니다。몸숙은 그것만 무치는것보담 청포묵에 너허서 무치는것이 더 낫답니다。그야 장에 가보면 배추도잇고 상취도 잇고 쑥갓도 잇습니다。보기에야 냉이나 소리쟁이보담도 더새롭해보입니다。그러나 그것이야 특수작물로 키어 낸것이니 맛이 어대 제철음식과 갓것습니까? 아모래도 요사이 제철음식으로는 냉이 소리쟁이 달래 씀바귀만 한것이 잇슬수 잇습니까?

침흘리는애기 원인은어데잇나

城大醫學部小兒科硏究室 李聖鳳

애기가 춤을 흘리면 더러워보일뿐더러 그흘려나리는춤으로인하야 입엽、턱、목에습진이생겨 고통을 밧게되며그것때문에 더욱주해 보입니다

샘과가티 흘리는 애기면아모리 자조 춤을씨서주고 터백기를 자조가러대어도 더러워보일것입니다 그런고로 춤흘리는 애기를두신 어머니는 다른사람보담 멧배나 부즈런해도 다른사람이 볼때는 그 어머니가 역시 추접스럽다든가 흉은 겨으르다든가 하는의심을 밧게될것입니다 아이가 춤을심히 흘리면 모자의사이라도 혹짜증을내고 그아이를 귀치안케 생각하는때도 잇슬것입니다 그런고로 이것을압아두심도 무익하지 안흘듯하야 소개하려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겟지만 춤은 입안에잇는 타액선(唾液腺)과 점액선에서 우리의 일생을통해끈임업시 늘분필되며 필요에응하야 즉음식물이드러가면 춤이만히 나와 드러간음식을 잘씹게 또 씹은음식을 잘너머가게 하는 작용을 하게할뿐더러 또는 소화작용에도중대한、역할을합니다 이러케우리의생활에 일시라도 업지못할춤이 필요이상으로 만히저흘러내리도록 왜 만하지나를 말씀하면

춤흘리는것은 아무 병이업는 건강한아이에게도 흔히 보게되는데 어떤때에흘리느냐하면 아이의니(齒)가 처음날때 전후하야 만히 흘리게됩니다 이것은 이시기에는 입안 점막에 보통때보담 혈액이만히지는 탓입니다 또 니가난뒤 좀 자라난아이에게도 춤흘리는 아이를각금보는데 이것은 일반이 관능성신경증(官能性神經症)에 속하는것이라고 하며 그외에춤흘리는 원인은 입안 목안의병、특히궤양성구내염 (潰瘍性口內炎)『아프타』『안기ㅡ나』『지부테리』이며 위장의병으로 혹 춤흘리는 아이가잇지만 이것은 그리 흔치안습니다 그리고 수은 옥도『삐로카르핀』등의 중독으로인하야침흘리는수도잇스며 또 천치 뇌의질환 즉중양(腫瘍)농양(膿瘍)안면신경마비등에서도 옵니다춤흘리는것뿐으로는 다른 위험성은 전연업스나 우에말한 더 입염 흉은 목이더러워지며 거북하여져서 그것때문에 아이가괴로워하야 그애기기르기에 힘이대단히 들것입니다 아이의 춤흘리는 원인이 만흐모로 무시로흘리는춤을 씨서주라고만 하지말고 의사의 진찰을 바더 원인적처치를 하는것이 조흡니다그런대 여기서 문제되는것은건강한데 춤흘리는 아이는 나히가 자라면 자연히 낫습니다 그러나 춤흘리는 시일이 하로이틀아니고 보통은 오래게속되무로 그냥두는것보담 의사에게문이하야 적당한 처치를 하는것이 조흡니다

신경통일는지요

문 금년십칠세처녀인데 일년전부터대변을 일주일에한번식볼니다 몸에난별연고업섯스나 작년칠월에 엽구리가 결리난고로 의사에게 진찰을밧으니 신경통이라하야 치료한결과 나헛습니다 그러하온대 작년십이월에그병이 또생기엿난대 역시신경통이라하며 그전약을주기로 지금복용하오나 별로낫지안습니다。엇지하여야 나흘까요(平壤一讀者生)

답 전일은신경통이라하야 치료를보앗스나 지금은 낫지안하시다고요 아마이번에는 신경통(神經痛)이안인지 모르겟스니 잘진찰을 다시한번 밧게하십시요 (大學院病伊藤內科 朴秉來)

校門을 등지는 동무들 ⑨

梨專篇
학부도놉흔자리 재원도 쏘다진다
—문ㅅ과、가사ㅅ과졸업생들—

학가람 볼비탈에피여난 우리
섯인이 이를흘러리화라섯다
거룩한노래 곱게도나니
황회방안에 천국이예라
리화리화 우리리화
진선미의우리리화
네향그널리퍼처라
아ㅡ우리리화

◇

금화산밋 푸른솔밧두덕에 놉히 웅장하고 튼튼하고 화려한 집은 단하나의 녀자최고학부인 리화녀자전문학교입니다 오늘의 번성을자랑하는 이학교도 지금으로부터 오십일년전 녯날이야기는비참하고 씁쓸햇다고합니다 『엠、에프、스크랜든』이란미국부인이 처음으로 정동에다가생도한명에게 영어를 가르치기시작한것이 리화녀자 전문학교의 시작일줄 누가 알앗겟습니까? 처음에는 학교일홈을 리화학당이라햇다는데 이귀한 일홈은고종황제께옵서 지어주시옵신 명칭이라고합니다

오십일년이란 긴ㅡ역사를 지어 오는 동안에 교장으로 부터 직원들까지 문화적이고 견실한조선녀성을 기르기에 무한히 노력햇다고합니다 현재문과 재학생만은 오십사명이며 제십회인 금년졸업생은 십륙명이라는데 취직지망자가 열네명이고 상급학교에 가는이가 두명이라니합다

우등생은 홍복유、한충화、최춘복、조숙경、장영숙、백국히、김한숙、김정오양들이고 그중에서도 홍복유양은 사년동안을꾸준히 특대생으로 와섯고 한충화양도 홍양만못하지안케 재조가조와서 항상 경쟁하는사이에 잇다고하며 최춘복양은 사업적인물로 현재청년회 회장직분을 가지고 장영숙양은 소설을 잘쓸뿐아니라 이번에 처녀작을발표햇고 림경애양도 수필、시를 묘하게 쓰고리보배양은 문학부부장이고、바로경양은 연극잘하고 글잘쓰는다재다능한이고、김한숙양은 통솔한포용성잇는이고、김정오양은 말을잘해서녀자웅변대회에도 참석한이라하며 백국히양도 글재조가 조타고합니다 그리고 상급학교에 간다는 두명은 홍복유 조숙경양으로 두명다ㅡ동북제국대학에 갓다구요

가사과 졸신도 열여섯명이라는데 대개가 취직을지망하고가정에 드러갈사람은 몃명안된다고합니다

금년에 재사회졸업생을 내게되것만큼 지금중등학교교원 자격을 어드려고 신청중이라나요 열여섯명중에서 무엇이고 다ㅡ잘할수잇는학생은 리열영양이라하며 공부잘하는이는 림명순양이라합니다 리은제양은 일본재봉학교에가서 더연구한다구요。

文科(私立中等學校敎員指定資格)(第十回)

姓名	原籍	出身學校
金錦珠	全南	進明女高
金順慶	平北	好壽敦女高
金貞玉	京畿	梨花女高
金漢淑	京畿	京城女高
朴魯慶	忠北	間島明信女學
白菊喜	京畿	梨花女高
延甲順	忠南	培花女高
柳順男	京畿	梨花女高
李鳳培	咸南	樓氏女高
林敬愛	黃海	門司鎭西高女
張永淑	京畿	梨花女高
鄭[illegible]順	京畿	好壽敦女高
趙淑卿	平北	梨花女高
崔春福	咸南	好壽敦女高
韓忠嬅	黃海	梨花女高
洪福柔	咸南	元山高女

選科

早野エリサ 岐阜縣 京城第一高女

家事科十六名(敎員資格認定申請中)

姓名	原籍	出身學校
金泳信	京畿	京城女高
金榮佩	忠南	公州高女
金雲鶴	京畿	沙里院高女
金寶富	平北	正義女高
方仁道	平南	正義女高
白得順	京畿	培花女高
徐希璋	忠南	梨花女高
成樂參	忠南	公州高女
安顯玟	京畿	好壽敦女高
李雲霽	黃海	沙里院高女
李兌榮	平北	正義女高
林命順	京畿	梨花女高
張甲富	京畿	好壽女高
張順福	咸南	永生女高
張順貞	京畿	好壽敦女高
[illegible]玉	京畿	淑明女高

斯界權威를總網羅 最近樂壇의豪華版

新春音樂大會

主催 進明女高同窓會
後援 朝鮮日報學藝部

二月二十六日午後七時半 市內長谷川町公會堂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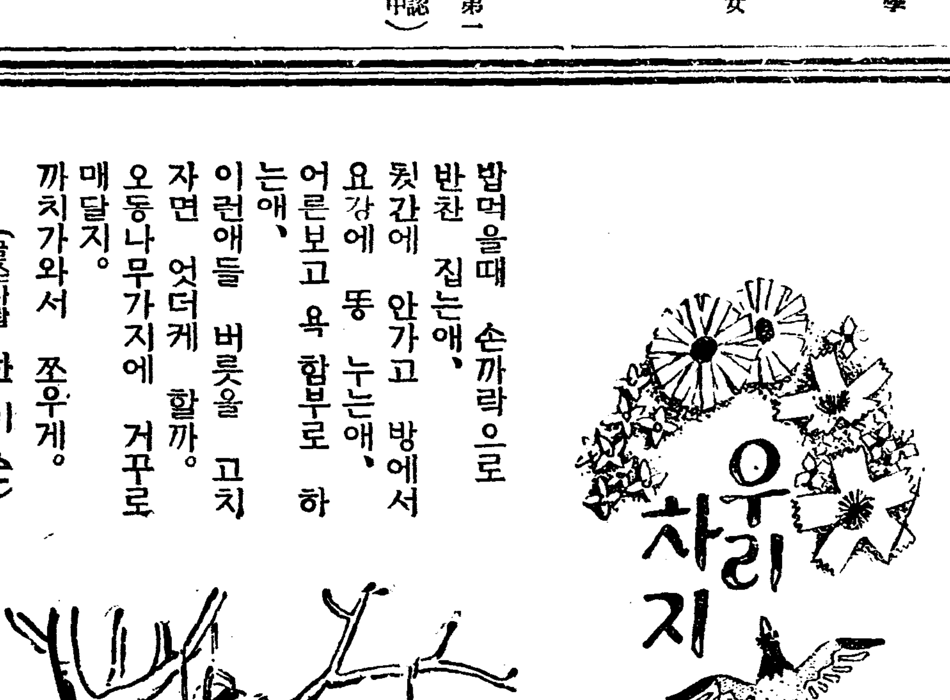
出演樂士
桂貞植、金仁洙、李興烈、朴泰喆、安聖教、金蓮淳
李美佐保、金永根、進明女高同窓會合唱團

◇入場料 一圓均一

猛練習中인 合唱隊

오는 이십륙일밤 본사대강당에서 진명녀자고보동창회 주최의 신춘대음악회가 열린다는소식은 루차보면에 소개한바이지만 당야에 출연할 진명합창대는 요새 련일 맹연습을하고잇습니다 사진은 동합창대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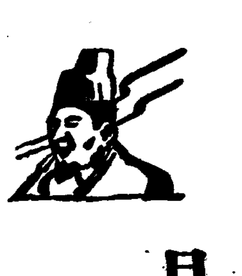
우리차지



밥먹을때 손까락으로
반찬 집는애,
뒷간에 안가고 방에서
요강에 똥 누는애,
어른보고 욕 함부로 하
는애,
이런애들 버릇을 고치
자면 엇더케 할까。
오동나무가지에 거꾸로
매달지。
까치가와서 쪼우게。

(글쓴사람 한이순)

月波先生【二】



宋影 作 金熊超 畫

사서삼경과 정주자의 송학과 퇴계율곡의 리조의 유학에대한 약간의 지식과 이 양계초류의 신사상을 한데석거서 노흔것이 월파선생의 모든것이다

그가 가진분리함은 대학의격물치지(格物致知)요 그가가진주관은 중용의 중화설(中和說)이다

그가 가진 정치학은 론어의 요순지도(堯舜之道)요 그가가진 교육학은 주자가훈 (朱子家訓)의 고대로 이엿섯다

그는 스스로 공자갓치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을 하려고힘올썻고 그리고 도일이관지 (一以貫之)의 태도를 취하고 잇섯다

그리고 그가 제일 분개하는것이 요사히 젊은사람들은 반쪽병신이라는점이다

신학문의 뿌리도 실은 구학문에잇는데 젊은사람들은 신학문만에는 다소 경솔히날뛰나구학문에대한 지식에는 넘우나부식하다는점이다

또 한편으로는 다소 한문이 능하다는 중년이상의 지식계급은 너무나 신학문에 몰리해한것이딱해보이엿다

구학문과 신학문에는 그만그만 장처와단처가잇다

그것을 똑알만치 취할것은취하고 버릴것은버려서 정당한것만을 가지고잇는것이 올흔일이다

월파선생은 이 가튼 사장취단을 잘한것가티 스스로 미덧다

따라서 반편병신들이되여잇는 완고패와 신학문패를 통틀러 비웃데엿다

그가 경영하는 글방의 일홈을 『시중』(時中)으로 취한것도 그의주장을 실행하느라고한노릇이다

君子之中庸也는君子而時中이요 小人之中庸也는小人而無忌憚也니라

재래의 조선의 학자들은 순전히 장구(章句)에만 매여달려서 왈가왈부(日可日否)하는 썩은선배들이다

글은들이요 나는나라는 실행업는 입만까학자들이엿섯다

글은외이는것이아니라 실행하는것이다

글을실행하려면는 때에따라서그 방법이다르다

또는 그 곳에따라서도 그모양이변한다

똑가튼인(仁)과례(禮)도 중국이 다르고 조선이다르고 옛날이다르고 지금이 다르다

그냥、옛날을 고대로지히고옛말에 그대로 쫏치기만하는것은 시중을 몰으는고수(固守)충의자의 어리석은행동이다

글가르키는것도 옛날에는 육예(六藝)에꼿치이고 육절(六節)에 꼿치어잇섯다

그러나 시대가 문명한지금에는 좀 더ㅡ달니 시대에 맛도록가르켜주지안흐면아니된다

이가티 생각하고 이것은 실행한것이 이 월파선생의 시중의숙이다

시중의숙에서는 한문이외의 또 가르키는것이잇다

측량법(測量法)、획법전서 (六法全書)、태권법 (체조대신)、산수학(算數學)들이 이 시중의숙에만잇는 특증잇는 교수과목이다

이것때문 한때동안은 아이들이 산가티모혀들엇섯다

구학문과 신학문을 겸처서배호는곳이라는 소문이 원근에자자하엿섯다

3

그러나 거는편 대촌리학교가 설립이되뒤부터는 이 글방은 변하기를시작하엿다

처음에는 『그까진학교쯤이야』하고 업수이 여겻스나 날이갈사록 그 학교는 작구커갓다

반대로 이 글방에는 영성은 가을바람이 불엇다、

촌학교는 처음에는 오륙명학생밧게업섯다 그때의 이 글방은 팔십명의학도가 잇섯다、

그러나 단다섯해바게 안지낸 지금에는 그 격구로가되엿다

촌학교학생은 백여명이나 넘고이 글방의학도는 단、열명바게아니남엇다。

학생뿐아니라 선생의인끄도 완전히 전도가되엿다 월파선생월파선생대신에 박선생박선생하는 소리가 여러마을안에 가득찻다

한창당년에 월파선생의 성명은 꿈가리 사러젓다 뿐만아니라 지금도 작구 사러저가는판이다

박선생의일홈은 한울에까지닷고 월파선생의일홈은 더 떠러질땅이업섯다

新日本의傑作品
─씽거ㅡ미싱과同一─
가격은舶來品半價!

國産 蛇の目 미싱 商標

陸軍省御用 文部省御推奨
海軍省御用 各女學校採用

躍進日本!의覇者

數年來顯著한發展을하고 잇는 躍進日本의工業은、文字그대로의 進步發展의結晶으로서 世界的驚異를 밧고잇는 我國最初의本格的!!國産蛇目재봉틀!!을生産하게되엿습니다。

國産蛇目재봉틀은 萬國標準型을 採用하고잇는故로 모든部分品이 世界各國에서 마음대로 살수잇는것은 勿論、舶來品과比較하야서 털끗만한遜色도업고 더구나、價格도半價로됨으로 只今은全世界를壓倒하야『싸고도 優秀한世界第一』이란 定評을밧고 멀이海外各國에까지 輸出이 急速한피치를올이고 잇습니다。

東京 大阪의 本工場에서는 年産額二百三十萬圓에 達하고 從業人員四百餘名은 自他가共認하는 東洋唯一의 미싱製造會社로되야잇습니다。

全鮮進出를目的하고 一郡에一店을標準하야 代理店을募集하고잇사오니希望區域를申込하시면年賣上豫想數及特定價格等을 詳細히回答하여드립니다。

萬國標準型 國産蛇目미싱

希望者는 京城府 萬稔ミシン商會 代理店係로

現在各代理店

禮唐洪 李泰敏商店 / 沙里院 吳得龍商店 / 延安 延安裁縫機械商會 / 恩山 鮮興商店 / 海州 福璧商會 / 靑陽 尹斗煥商店 / 南原 朴琪永商店 / 南川 平山ミシン商會 / 發津 金津裁縫機械商會 / 昌城 / 慶州 甲子蠶業組合ミシン部 / 信川 尹鍾澤商店 / 平原 信川ミシン商會 / 東萊 李一核商店 / 宜寧 李萬鎰商店 / 安岳 宜寧商會 / 鎭南浦 金秉律商店 / 龍岩浦 歐米裁縫機械商會 / 江華 鮮滿ミシン商會 / 論山 高必審商店 / 安城 中堅商會 / 固城 安城ミシン商會 / 新義州 千泰洪商店 / 平壤 金明熙商店 / 金泉 各國ミシン商會 / 朴聖鎬商店

尙州 朴容勳商店 / 晋州 二申商店 / 水原 水原ミシン商會 / 兼二浦 玄應八商店 / 松禾 李基元商店 / 井邑 井邑ミシン商會 / 昌寧 崔泰世商店 / 加平 鄭泰復商店 / 谷山 谷山ミシン商會 / 江西 平和商會ミシン部 / 寧越 金鴻周商店 / 大田 禹一讓商店 / 醴泉 黃在宇商店 / 群山 趙錫九商店 / 瑞山 川端商店 / 城津 趙丙律商店 / 開城 開城ミシン商會 / 忠州 中山ミシン商會 / 牙山 昌益商會 / 載寧 李駿容商店 / 北靑 全竹修商店 / 吉州 梁錫煥商店 / 順天 李ミシン商會 / 榮州 安正鎬商店 / 全州 合名會社三和商店 / 扶安 金在根商店

資本金百萬圓
東京 大阪 帝國ミシン株式會社
京城府大門通一丁目九九
朝鮮總代理店 萬稔ミシン商會
電話本局(2)四五八三番 振替京城一四五二八番

本社 東京市中野區宮前町
大阪支社 大阪市東區心齋橋筋南久寶寺町一〇
各地支社 名古屋、福岡、橫濱、神戶、京都、廣島、甲府其他

二月二十三日부터特別大公開!!
코럼비아特作全發聲大冒險篇
原作脚色하를드、分ㅡ매ㅡ드氏
猛火의決鬪
監督 로스랜디氏 主演 뎀마코이드氏
[illegible]
京城撮影所特作品!
朝鮮映畵 前科者
監督 金蘇峰 撮影 李明雨
出演 李錦龍 李素然 金蓮實 朴英姬
大都映畫社特作時代劇 石山稔監督作品!
鍔鳴り兄弟鑑
主演 松山宗三郎氏 助演 近衛十四郎 三城輝子
貫鐵洞 電光三九五
優美館

二月十八日부터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
入場料 階上大人六十錢小人四十錢 階下 三十錢小人二十錢
東西二大特秀作品封切
高麗키네마製作『강』映畵
原作 申鄕牛、監督 安鍾和、撮影 孫勇進
강映畵 逆襲
朝鮮初有의『강』映畵로서興行價値百%에大豪壯版 새벽銃聲에警戒網을脫走한강!!精銳警察의大活躍으로강을逮捕한戰慄篇出場人員二千名의大陣容!!
廿世紀FOX社超特作全發聲 日本版音樂映畵
監督……젬스티링
戀のセレナーデ
밧트·빠타손、널스·아스타ㅡ主演
사랑의魂을高潮시키는精進名曲 純情!樂聖介ㅡ벨트의秘藏의一代記!
仁寺洞 電光三六
朝鮮劇場

二月二十二日より三月三日まで 上映時間表
バークス兄弟 [illegible]
發聲ニュース [illegible]
新婚三壘打 [illegible]
雪之丞變化解決篇 [illegible]

メトロ映畫
▲バークス兄弟
眼と耳の新聞
▲松竹發聲ニュース
蒲田ナンセンス映畫
▲新婚三壘打
小倉繁、出雲八重子
連續一ケ年波瀾曲折の物語り愈々解決!!
林長二郎 二役主演
▲雪之丞變化解決篇
衣笠貞之助監督作品
洋劇專門 浪花館

二月廿三日特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半、午後一時半六時廿分)
─特別大興行─
◆RKO라듸오超特作映畵
쫀·크럼웰監督 캐사린·헵뻔主演
들 薔薇
[illegible]
◆RKO라듸오超特作映畵
『불상한동무』(푸란다스의개)
푸랭키·토마스少年 名犬、라이드닝 主演
[illegible]
◆日活特作映畵
쿠카랏챠
杉狂兒、山路ふみ子主演
花嫁寢臺列車
全鮮第一映畵殿堂 電光九六
團成社

압흔痔에는 치세로 (오세로)
痔疾藥
全國各藥店에잇소

11.2.25 CCC LIBRARY

春陽獨語 (七)

金晋燮

추위추위해도 이번 겨울가티 그추위가 처음부터끗까지 우리의 豫算과體驗을 威脅한일이란 近來에 그例가 드믄듯보인다. 우리의 오래동안의 經驗에依하면 嚴寒이 이번겨울은 朝鮮이 往來한 그러한 時候는아니엿다. 이것은 朝鮮이라도 어느 太古時代에나 잇슴직한겨울이요 그러치안타면 다른곳으로 輸入되여가는 途中에잇는

北國 이 이나라에 잘못드러온感이 죽어 不無하다 잘못드러왓거든 잘못드러온理由로서 봄이오기前에 하로밧비 正常한方向을 求하야 감이 올흘것이로되 이제 우리는 두가지의성을 치룬지 오래고 봄의到來를 明示하는 立春이 간지 旬日에 가까워도 아즉 餘寒은 자못 頑强히 世上의 皮膚와 榮衛한筋肉를 襲擊하고잇다. 紛紛한白雪――그것은 모든것이 올과가티 똑똑하고 모든것이 追憶가티초라한 겨울날에잇서 우리가 가질수잇는 오죽하나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敍情詩에 屬하지만 요사이 몃칠을 거듭하야 이상스럽게도 날이금작스리 좋니는것가틈에도 不拘하고 散火나 이른바春雪이無情히 내리며 낫데업는 春陽의作用에 이冬節의 產物이 힘이시도 놀奇蹟아니라 위겨울내 처음으로 鮮麗의 現象이 地面에 나타남을보게되니 果然이白雪은 冽寒를 앵기는 嚴冬의 最後의 선사인가 봉이차고 잇는時計는 아마도 조금좀은 더디 감이常例라할지라도 原形을 自身로 사람에게 約束한 따뜻한봄은大端히

經濟 하기야하지만 이제로 부터서는 우리를 失色彩와 例의노래를 가지고 차자로 이世上을 裝飾하기 始作할것이다. 겨울이 추우면추울사록에 모든生者의 봄을기대리는 마음이 더욱 切實하여질것은 두말할것이업지만 殺伐 이곳에 完全히 모든生命力이 發芽하는봄 燃燒하고 分解하고 再生하는봄 凍結의北風을쫏고 새소리와 꼿香氣와 解放된流水聲이 情熱과 誕生의 偉大한 讚歌를 다시금 노래하는봄, 그러한봄이 具象化하지안튼다하드래도 異鄕하 우리가 皮膚의 苦痛으로부터 우리를 解放식혀주는 봄의恩澤만을 생각할때 벌서 이事實은 決코 平凡치안흔것이다. 房안보담도 外界가 또시다는것은 겨울을치루고난人生이 봄날에 문득經驗하는바 놀나운事件에 屬하거니와 그러므로 이때는 부억에 장작단이 만히보이지안허도 그다지큰걱정거리가안되은 勿論이오

우리 가따뜻한날을맛하서서 처음으로바로펴고 그모진추위속에서 逃苦生은 苦生이엿스나 그러하되別로 異狀은업섯든 옛人生을 다시금 悠悠히 觀察하며 몰리가 나무가 이제는 開花의 繁華한 모든는大地에선 가지만앙상한 幻像을 體驗하고잇슴을 봄으로 依하야 그동안 이世上에서 죽어업서진것은 아모것도업다는事은것이아니다. 詩人마크스・다우텐데이가 일즉이 「새들은 太陽에醉하고 모든庭園에선 노래가 빗나네. 사람마움속엔 새들이 깃들고 모든마음은 庭園이되여 그래서는 다시금 피기시작일세.」 라고, 봄을 노래한것가티 봄은 또한 즐거움이시 사람의마음을 뜸樂化식히고 모든 開化식혀 限업는 再義의 快樂을 맛보게할것이겟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봄은 우리에게 對하야

愉快 한一面만을 提供하는것은 아닌듯십다. 봄은 快樂과함께 마음의役을 사람에게 가져다줌을 決코 잇지안흘뿐아니라 오는봄은 恒常 그가 올적마다 모든사람에게 各其自己가 이곳에 온뜻의 엇더한것인가를 嚴肅히 뭇지안코는 아니두는까닭이다. 이러하야 엇던사람이 快樂과함께 苦痛을 素朴하게밧고 그의質問에 單純하게 對答할수 잇다면 그는 幸福한 사람이다. 그러라고 나는 大膽하게 몃십번재의봄을 이제나는 마지하느냐하는 世上에 흔히잇는威歎을가지고 아모것도 하는일업시 헛되이사는年齡를 悲嘆하는野心家는아니다. 주는나이야 안먹을수잇느냐, 못할일이야 허는수업다는것은 사람의 健全한 哲學的快活이 이미옛날에解決한問題라고 나는 생각하고잇는까닭이다. 여긔잇서 나의關心事는 무어나하면 그것은 一言으로말하자면 엇더케해야 이人生을 될수록길겁고 길게살수잇겟느냐, 即다시말하면 엇더케해야 이人生을

節度 잇시享樂할수잇겟느냐하는것이다. 그러나이方法은 누구보담도 잘 봄이알고잇스니까 무르녹는봄이여 어서오라!

能動的人間의探求

―哲學과文學의接觸面―(二)

② 金午星

精神的行動인 姿勢는 內的으로는 感情的인것 外的으로는 能動的인것은 同時에 意識함수잇는 內面的運動이다. 그러므로 人格이란 一定한 心的觀點에 依해서 自己의 모든姿勢 卽行動을 瞬間的으로 連續시키는것이라고 하엿다. 우리는 以上의 페르낭데스의 行動主義가 行動이란

名 詞만 借入한 칸트流의 二元論的 觀念論에 不過하다는것을 알수잇슬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精神主義이려한 精神主義와는 絕對的으로 區別되는것이다. 能動主義가 『不安으로부터 再建에』의 目標를 達成하려면 어대까지나 具體的 感性的인 領域을 固守하지안코면 안된다. 웨-그러냐하면 今日의 現實的不安은 精神的이기前에 『感性的인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能動主義가 眞實로 不安을 超克하려는 人間層의 指導的이데오로기-가되려면 卽萬驛의 理論보담도 오히려 不安과 混亂속에서도 冷靜한 洞察力과 百折不屈의 信念과붉다는 建設的情熱을 가지고 이類의 明日을 創建하기 爲하야 行動할 그러한 能動的人間타입을 發見하며 創造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그러한 能動的人間만이 現實的不安을 超克할수 잇슬것임으로써이다.

二

그런대 能動的人間타입의

探 求는 哲學보담은 文學領域에서 可能하다 할것이다. 웨-그러냐하면 能動的人間타입은 어떤理念의 또는 概念的인 人間을 意味함이 아니요 意欲的인 意欲과 情熱에 불타는 生生하게 行動하는 人間의 性格, 타입을 意味하는까닭에 事物의 概念的認識이나 理念的推理만을 目標로하는 從來와가튼 講壇哲學에서는 이러한 人間타입을 보혀주지못할것이요 오직 산人間의 行動 性格 타입을 描寫할수잇는 創作을 目標로하는 文學에서만 可能할것임으로써이다.

實際에잇서서 人類의 偉大한敎師라고하는 大哲學者 아리스토테레스나 칸트가튼이도 우리에게 模範할만한 어떤獨特한 人間타입을 提示하지못했다. 勿論 아리스토테레스의『政治的動物』로 나는理性的動物』로서의 人間이나 칸트의 일은바『네의 意志의格率이 항상 同時에 一般的立法의 原則에 妥當하도록 行爲하라』한 格率的 倫理的인人間이

特 殊한 人間타입이아닌 비 아니나 그러한理論的으로 解釋된 人間타입이 우리의實際生活에 어떤影響을주는가는 疑問인것이다. 그보담은 오히려세르반테스의『동・키호테』 섹스피어의『함렛트』 파-테의『파우스트』 『투르게네프』의『바사롭』 『니-체-』의『짜라투스트라』로 스토이엡스키의『地下室의사나히』 등이 우리에게 어떤點으로나 生生한 影響을 주고잇는것이 事實이다. 그것은 人間의 偉大한 性格과 타입은 藝術家만이 創造할수잇스며 偉大한 藝術家는 그時代의特徵을代表할 人間타입을 創造할수잇슴을 反證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探求하려는能動的人間타입은 단히 藝術家의 創作에서만은 實現될수업다. 웨 그러냐하면 藝術家의 創作世界는 그가 리아리스트일때에는더 무나 現實的 外部的인것에 끈치기 쉬우며 그가로만티스트일 때에는 너무나幻想的이기 쉬운 까닭에 不安으로부터 再建에를

目 標로하고 行動할能動的人間은 이러한單純히 現實世界에서만 行動하는 人間이나 單純히 幻想世界에서 浮沈하는人間이 될수업는까닭이다. 그러므로 能動的人間타입의 探求는 單純히 哲學的 認識 推理만으로도 不可能한 同時에 單純히 藝術的 創作만으로도 不可能한것이다. 오직 兩者의 緊密한 協力乃至 結合이 잇는데서만 可能하리라 생각된다. 能動的人間타입의 探求는 먼저人間性의 認識으로부터 出發하지안흐면 안된다. 우리 人間性의 內面에는 과연 能動性이 潛在해잇는가를 알어보아야 한다. 만일 人間性의 內面에 能動性이 潛在하지안는다면 우리는 能動的人間타입을 創造할수 업슬것이며 또 억지로 지여놋는다 하드래도 現實에對해서는 돈・키호-테以上으로 無力할것이다. 그러나 哲學的 認識 推理는 항상 이미 所與된 對象 即 旣存在를 對象으로 하게된다. 그러므로 人間性의 哲學的探求는 人間性에 所與된것을

認 識할뿐이며 이所與된 人間性의 認識을 基礎로하야 人間性의 어떤可能性을 推理로서 豫感할뿐이다. 그러나 能動的人間타입의 探求는 이러한 人間性의 認識推理에 머저질수는업다. 웨-그러냐하면 能動的人間타입의 探求는 人間性의 認識에 그目的이 잇지안코 오늘의 不安을 超克하고 明日의 人類의 生存을 再建할 行動하는 人間 未來的인 人間을 實現하기 爲한것임으로서이다. 여긔에서 藝術的創作의 힘을 必要로하는것이다.

漢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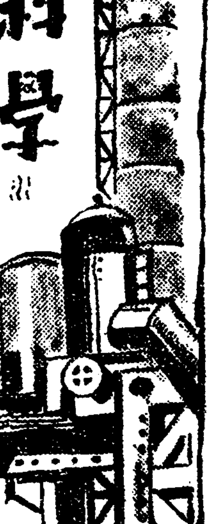
春雪 三疊之一

市內貫鐵洞　春雪子

陽春已到水西東
忽有天寒動雪風
舞下皎皎潛消影
飛來點點懶飄空
樓前閃過梅花落
陌上縈廻柳絮同
竟値非辰歎不遇
謾敎潔白染塵紅

【評日】人不知而不慍是謂市中之大隱乎。結句是自舒耳

男女專門學校
交驩의밤　惜別의밤
卒業生送別音樂會
時日・場所　二月二十五日下午七時　朝鮮日報社大講堂에서
(卒業生招待券外에場內整理費二十錢均一)
出演樂士
梨花專門學校　京保合唱團
梨花保育學校　世專四重唱團
延專管絃樂團　延專四重奏團
主催　延專學生基靑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科學

1935年度 노-벨化學賞 研究에唱隨한 죠리오夫妻

② 都相祿

라듸엄가튼 放射性元素는 알파粒子 或은 뻬-타粒子로된 호를 或은 감마線가튼 所謂 放射線을 放出하는대, 이러한 能力을 放射能이라고 부른다. 라듸엄이 醫療上 或은 工業上에 寄與하는바가 큰것은 이와가튼 放射能이 매우 强하기 때문이다.

一般 으로 放射能은 原子에 固有한것인대 다른 原子와 化合한 狀態라든가 或은 一般의 物理的 乃至 化學的作用으로 말미암어 影響밧는 일이업다. 그러므로서 放射能의 機構를 闡明하려면 原子核構造論의 發展을 기다릴수 밧게 더-빠른 길이 업슬것이다. 現在의 核理論에 의지하면 原子量이라는것이 큰 元素의原子核, 알기쉽게 말하자면 매우 무거운 原子核은 安定한構造가 아니므로서 偶發的이라고나할가 때때로 放射線을 放出하고서原子核自身은 壞變하여 다른原子核으로 遷移하는것만은 明白한 事實이다. 이것이 所謂 放射性元素의 壞變인대, 天然의 放射性物質은 어느것이든지 이와가티 壞變하는것이다. 이제 만일 人爲的으로 不安定한 原子核을 지어서 放射能을 가지게하고 또한 그放射能이 라듸엄程度의 或은 그以上의 强한것이 된다고하면 그 얼마나

滿足 스러운 일일가 하는것은 十數年來의 우리의 꿈이엿섯다. 이 꿈을 매우도 自然스럽게 實現시킨것이 곳 죠리오夫妻의 發見한 人工放射能의 機構이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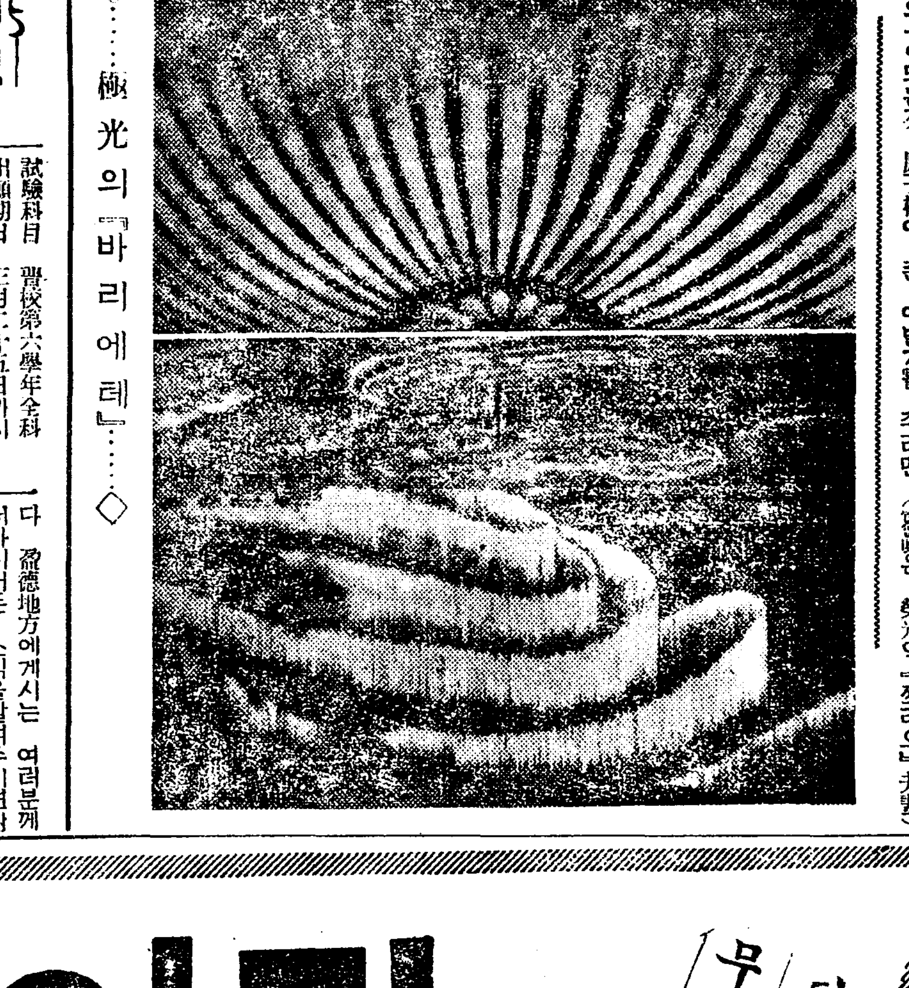
다음에 죠리오夫妻가 成功한人工放射性原子의 發生機構를 說明하기 위하야 原子壞變 或은 元素의 遷移라는것을 다시 한번說明해야 될것같다.

旣述한바와 가티 原子核이라라는것은 어지간히 安定한것으로써, 이것을 破壞하야 다른原子核으로 變換시키어서 元素를 遷移시키기가 매우 困難한것이다. 그런데 放射性物質의 原子核은 自然的으로 壞變하야 漸次 다른元素로 遷移해 가는것은 임의 아는바이다 例하면 라듸엄은 原子核에서 알파粒子를 放射하고서 라듸엄自身은 라돈이라는 瓦斯狀의 元素가 되고 라돈은 다시 다른 元素로 遷移하고 이와 가튼 五六回의

壞變 을 거듭한뒤 畢竟 終局에는 鉛이 되고만다. 空中으로 새들이 날라다니니 우리도 날려다닐수 업슬가 하는 생각은 爲先 飛行機를 發明하엿다고 볼수 잇슬것이다. 自然的으로 原子가 壞變하니 또한 人爲的으로 原子를 壞變시키어보면 어떨가 하는것은 캐벤듸슈研究所의 突氣엿섯다. 古代의 鍊金術에서는 化學的操作다시말하면 原子核을 周圍하는電子에 對한 作業에 의지하야 原子의 壞變을 實現시키려다가失敗하엿고 오늘날의 鍊金術은 成功되엿것이다. 原子核이 安定하야 이것을破壞하기가 困難하다는것은 알기쉽게 말하자면 外部로부터 核에다가 에넬기를 充分히 줄수 업다는것이다. 普通水素의 原子核인 푸로톤의 크기는 이것을 球라고보면 그 直徑의 一萬倍가 一糎의 一兆分의一이되는것이다. 다른

元素 도의 原子核의 크기도 大差 이와 비슷한것이다. 이와가튼 無限小의 微粒子에 큰 에넬기를 준다는것이 진실로 困難한操作이다. 그 주먹으로 손바닥을 누르면 그다지 알푸지 안흐나 바늘끄트로 누르면 몹시 알푼것이다. 이것은 누르는 힘은 가튼나 누르는 이와 마찬가지로 無限히 적은 原子核에 큰 에넬기를 주려면 에넬기의 密度가 莫大하게 크지 안흐면 아니된다. 爆彈을 떠러트릴지라도 原子核은 곰작도 아니할것이며, 北山덩어리 가튼 物體가 떠러진다고해도 原子核은 破壞되지 안흘것이다. 原子核을 破壞시길수 잇는것은 크기가 原子核에 비슷한 高速度의 物質粒子 或은 에넬기가 充分한 감마線 가튼 것이다.

(寫眞은 榮光의『죠리오』夫妻)



◇……極光의『바리에테』……◇

男女專門學校 第二回 送別音樂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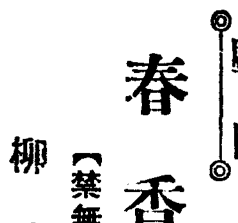
當夜의順序도이미決定

延專學生 基督敎靑年會主催와 本社學藝部後援으로 專門學校卒業生送別音樂會를 연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이제當夜의 푸로그람도全部決定되얏스니 아래와갓다

一、女聲合唱　京保合唱團
流浪民　슈만作
一、소프라노獨唱　梨專李慶煥
말하라、그맑은소리로　롯티作
一、絃樂四重奏　延專絃樂四重奏樂團
四重奏曲　하이든作
一、二重唱　梨專劉吉淳　崔致善
들장미　호론作
一、피아노獨奏　梨專李順謙
끄렌드월즈　쇼팡作
一、男聲四重唱　世專四重唱團
꿋바이　가부리엘作
農夫歌
一、管絃樂合奏　延專管絃樂團
세비도라의理髮師　롯신作

時調書帖 (其六)

東窓이 밝앗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해들은 상긔아니 닐엇나냐
재넘어 사래긴밧츨 언제 갈려하느니
(南九萬)



戲曲 春香傳 (十)

【禁無許上演】

柳致眞 脚色

第二幕 第一場

【登場人物】

春香　月梅　香丹　寡婦　이웃村婦　老人(이웃사람)　이웃下人　房子　行首妓生　朴書房　金書房　使令甲　使令乙　其他洞里老少男女兒孩等多數

【場面】

前場과가튼 舞臺―春香의집。夢龍이가 떠난後 거진二年이나된때다。春香의집은 어쩐지 全體로 零落해보인다。

新春

幕이열리면 지금 단장뒤행길에는 新官使道 卞學道가 到任하는 行列이 지내가는모양이다 단장우으로 쭈빗쭈빗보이는 名色旗幟와 日傘그리고 虎尾金鼓、胡銃、고동、笛、囉叭、鉢鑼、細樂、皷等의 가진吹打行樂소리는 天地를 振動하고 間間히들리는 勸馬聲도 生氣롭다。

이行列에對한 記錄을 參考하면 卞府使는 구름가튼雙轎별辇에 덩그러케 올라탓고 그 前後左右에는 六房아전은勿論이오、使令、級唱、通引、羅卒、日傘、隨從等 許多한官屬들이 말탄者는 말을타고 걸을者는 걸어서 이行列의길이가 十里에 連한듯하다는것이다。

春香의집 단장에는 이行列을 求景하자는 男女老少의各種의 이웃사람들이 모혀잇다。그러나 夢龍을 일흔春香은 홀로 넘어시 마루에안저잇다。매우 衰弱하야 病人가티 파리하다。

春香母月梅는 香丹이를 데리고 사람의눈을 避하야 花階미테다가 무엇을 파무드려한다。

間

이웃村婦와兒孩―조금떠러저서 洞里下人―뛰어登場

村婦　(단장넘으로 보이는行列을 가르치며) 춘향어머니 구경 좀 시겨주오。(따라오는 아이를보고)얼른 오너라 이년아。(단장편으로가서 행길에。지나가는 行列구경을 한다。洞里下人은 벌떡솟아 단장위 올너안는다)

(이웃고 이웃寡婦 또 조용히 登場한다。)

寡婦　에그 섭님 저구경은 안하고 뭐하오?(단장편으로 가려한다)

月梅　(소리를나처서)아우님 그런구경놈랑 잇다가 하고 이리와서 이것 좀 도와다오。

(寡婦月梅편으로온다)이걸 얼른 파무더 버려야 하겠는데 어떠카노?

寡婦　에그 형님도 참! 상기 이러고잇소? 우리집에서는 다 치어버렷는데。

月梅　글세 춘향이가 저러케 시름업시 알코만잇스니 난들 어듸 마사에 뜻이잇나。차일피일 하다가 그만는젓구나。

寡婦　애개 이까짓 호미로 무얼 하겟소? 향단아 얼른 광이 차저오너라。

(香丹이 뒤것으로 간다)

月梅　아우님을 보니 나도힘이 나네。

寡婦　(팔걷것고 손으로 구뎅이를 파며) 이번 신관사도는 아주성미가고약하신 양반이시어서 재물이라면 시비를 따질줄 모른대 형님 서뿌리 하다가는 마다빼앗기고 마리다。

月梅　글세 나도 그래서 걱정이여

香丹　(광이를 가지고다시 들어오며) 여깃읍니다 마님。

寡婦　올치 되엿다。(광이를 바더가지고 熱心히 구뎅이를 판다)

月梅　아이구 아우님은 힘도 세고나。

寡婦　말마오 형님。나는 구뎅이 파기에는 아주 이골이 낫소。으례 신관사도가 도임한다는 소문만나면 그저 파묻기가 일인걸요。이번에 우리집에서는 땅그렁 소리나는 것은 다 치어버렷소。수까락 한가락 안남겨 노앗지。

月梅　암 그래야지。잇는밥이야 손우라으로도 먹을수잇는걸。

寡婦　요즘 괴장들은 그저 글갱이질 박젠 모릅듸다。몃해전에 밥부랑이 밥부사 보앗지오? 에그 그때는 글세 백죄 병기(兵器)인지 무언지를 만드러 국고(國庫)에 바친다고 우리요강까지 빼아서 가지앙혓소。그랫는데 글세 나종에 아러보니까 병기는커녕 그걸 죄 녹여가지고 도을 치어서 모두 서울 자기본댁에 다 보내대요。참 기가 맥혀 죽을일이지。

入學細規

黃州春光園藝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申請期間 三月十六日까지
▲試驗日字 三月十八、十九、二十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算術

私立公州永明實修學校

募集人員 五十名男子部二十五人 女子部二十五人
試驗科目 普校第六學年全科
出願期日 三月二十五日까지
試驗期日 三月二十六、七兩日

讀者交友室

▲사랑하는 제同生의 일홈은 李友信、나이는二十四才오대 무단이집을나간지가三年이오데 全然消息을몰나 답답합니다 風便에들으녹 慶北盈德에잇단말이잇삽는데 주소를몰나편지도못합니다 慶北盈德地方에게시는 여러분께서아시거든 소식을알여주시면謝禮하겟나이다 京城府玉仁洞九八番地(三光堂內) 李鮮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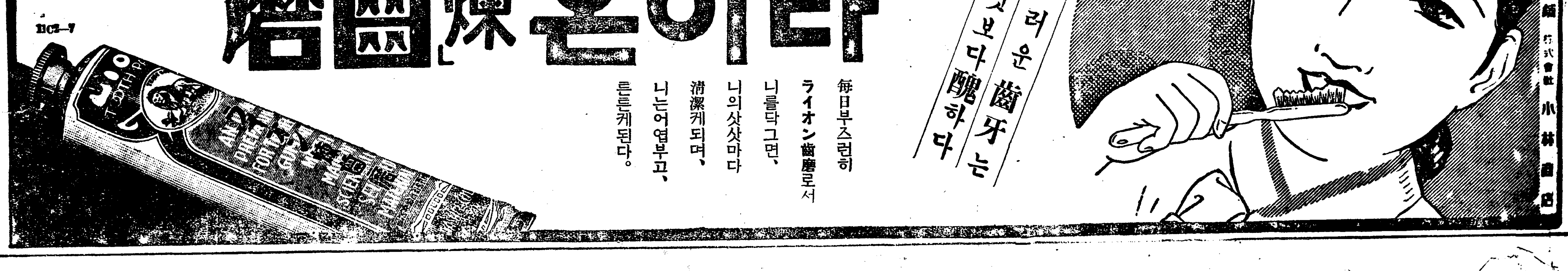
▲黃材景先生에게뭇삽니다 昭和十一年二月二日夕刊附錄漫談두토막속에쓰신 쪼손、밀톤、채엽드、해리파트等은 어느나라사람이며 일홈은무어입니까? 一一히下敎하여주심을바라나이다 府外新堂里一三一 車善

▲牡丹苗木(名稱付二、三年生)을 實費分讓하야주실 園藝家가게시면 通知하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開豐郡豐德 李聖薰

▲中學卒業 又는 小學校敎員經驗이 잇는분으로 內外共히 敎鞭을잡고 僻地農村兒童을 爲하야 獻身努力할 篤志의士를 求함 山明水麗하야 修養에適하며 生活費至廉합니다 待遇는二人分 年給三百五十圓이옵고 舍宅은 잇삽니다 志望하시면 至急 仁川宮町一九番地 三陽社宛으로 問議하시요

▲二月四日付 本欄宜川一讀者께서所持인 韓國時代古郵票는 全世界百五十萬 郵票蒐集同好狂들의 腐求하는 貴物이 옵시다 遞信界에 因緣잇는 저로서도大端히 興味를 가지고 蒐集하는中이옵시다 널니紹介도 하겟고 또相當한市價로 讓受하려하오니 下記로貴住所貴名을 通知하여주시요 京城郵便局電信課內 金凉松

▲貞洞 竹添町等西大門近處에 淨潔한下宿을 求하오니 흙그러한듯을 가지신분은 朝鮮日報社學藝部로 電話로나 葉書로라도 通知하야 주시옵 願함 (求宿生)



黃昏 【20】

韓雪野 作 安夕影 畫

취직 (一)

경옥이는 녀자고등보통학교 입학시험에서 떠러지고 말앗다。

이것은 그부모의 희망을 꺽는 한스러운일이엿슬뿐 아니라 려순의 중요의기회를 죽이고 그생활까지를 위협하는 결과를 나엇다。

경옥이가 그러케 된것을 알게되매 그어머니의 락심은 컷다。분하고 한스러웟다。

그리고 경옥이가 입학되지못하엿다는사실은 나아가서 경일이에게도 락망을 가지게하엿다

경옥이 보다도 더머리가 낫부고 더공부하기를 실혀하는 경일이가 명년에 중학교에 합격되지못할것은 달력의금은수자를 보는것보다도 더명백한일이엇다

그래서 이러한심정은 마츰내 노염이되고 미움이되어서 려순에게 부더첫다 그집으로부터 나가달라는의사를 은연히 표시하게되엿다。

『고년들을 학교고 뭐고 인제 공부 안식히겟소』

하는 어머니의말은 당장 봇다리를 싸라는말보다 더압호게 려순의가슴을 첫다。

려순이가 미안하다는말을 한때에는

『모다 제탓이지요』

하고 일을 다다물는 그어머니는 려순이가 돌아나와 대줄에도 발을대이기전에

『그만치 뒷바라지를해주면 멧곱절나은사람을 갓다둘텐데…… 금순이네학생(가정교사)은 일년도 다안가르치고 입학식혓대는데 팬니 사변절이나두고』

하고 입이쉴새업시 종알종알한다。

려순이도 그것이 모다 속히 나가라는말인줄은 잘알고잇섯다。또 마음갓해서는 그당장으로 뛰어나오고 십헛다——

『자식두 외양깐에서 나앗는지……그래두 제자식 말은 헐줄모르고……』

이러케 톡 내바다쏘고 갓다보아라하고 튀여나오고십헛다。

허나 가면 어듸로갈것일까? 그가 갈곳은 업섯다。시굴로도 갈수업는터이요 사실마장안헌지라도 형협한 그한몸을 용납해줄곳은 업섯다。

허지만 나가라는데 안나갈수도 업는터이다。정녕 미움이깁허지면 등이라도 밀어낼것이다

려순은 나갈수도 또 안나갈수도업는 그러한딱한처지에서 몃날을 보내엇다。

아모도 그를 동정하는사람은 업섯다。

그의본래의 성격으로 말하면 길ㅅ가에 나안는한이잇더라도 튀여나오고말앗슬것이나 사변남아잇는사이에 얽키인 주인의사정은, 책임감과 의리 인정이잇는 그의천신을 그러케 개벽고단순하게 하지못하게하엿다。

개중에도 얼마동안 기다리고 잇서달라든 경재의 말이 무겁다

그러나 오직 한사람—경재만은 그의신상을 누구보다도동정해주엇다。위로해주고 또 취직이라도 될수잇는대로 힘써보겟다고 말하엿다。

허나, 경재는 근일에 와서는 밧그로 나다니는일이만아서 집안사정을 잘알지못한다。해서경일어머니가 그가티 독살을피이는것까지는 알지못햇다。

하루두끼를 주인어머니에게어더 먹는 려순에게는 다섯아들(경재)의 동정보다도 한주인의 미움이 보다무서웟다。

려순은 자기를동정하는 오직 한사람인 경재에게 사정을 대강이얘기하고 위선 동무의집에라도 며칠가잇서볼가도 하엿다

허나 그러케되면 경재의 성미로, 당장 집안에 큰풍파를 일이킬것이요 그리면 두사이에서 자기만 더딱하게될것이엇다。

혹 백화점점원이나 될수업슬까 하고 차자보앗스나 그도 되지안헛다 고학교에부탁한 취직이나 어떨까 하고 가보아도 말하는두가 한송정이다。

게 그의말을 붓잡고잇섯다。

그는 웬마하엿이잇더라도 좀처럼 밧그로 나가지안헛다。나가다가 들어올때에, 내다보는 주인대의얼굴은 별로 딴기색이업서도 그의눈에는 동기가잇는것가티뵈여서 예초에 나가지를 안헛다。

그리하야 그는 외출을 제방에 꼭 드러백여서 경재가 사다주는책을 드러다보고잇섯다。

그것을 보고잇스면 얼마큼은 잡념과 주위의 거추장기를 이즐수가 잇섯다。

그러는사이에 차차로 궁일는혓다。

자미도 낫다, 글을 골들히 읽고잇스면 그만치 불안을 늘수가잇다든 경재의말이 사실에 어그러지지안흠을 그는 께닷다。

또 세롭운지식을 엇은것도 적지안헛다。혹 모를것이 잇스면 남이보지안는사이에 경재에게 못기도햇다。

그러면 그는 자긔가아는범위안에서는 에써 여러가지로 설명해주엇다。

그정성스러운 태도에 려순은 눈뿌리를 뜨겁게할도 적지안헛다。

朝鮮映畫十五年

初創期에서現在까지 —走馬燈에비친記憶—

④ 白夜生

나는지금도 이리경손씨를 잇지못한다 지금은정그태씨의 말을드려안남인가 섬라에서 학교 교사를다니다하나 그의불우한 일생이 아죽도 펴이지못하고 고토를떠난지 여러해지만그의 음신조차업스니 조선영화게가 사람을 일흔것이다

씨는 시인이다 음악에대한 해석도 잘하는이다 어렷슬때부터 고생 사리롭한 그는 어렷슬때부터한 그방랑 생활이 아죽도 그의게서는 이러버릴수 업는생애가 되고만 것이다

그가 영화를제작햇슬때 큰돈이자긔아페 오고가고하엿스나그의 몸에는 언제나 해여진 양복이걸치여잇고 그의 구두는언제나 창이나잇헛다 다른배우들은 파란넥타이 붉은넥타이를하고 아름다운 녀인과 산보도하지만 씨는 언제나 어두운 여관방구석이나 쓸쓸한 골목가튼데서 세월을 보냇다 그는차푸린을 숭배하엿다 그래서 그러한지 어던지 그와 공통된 구석의 뼈이노릇으로 부터 여러가지 고초를격근그는 언제나유족한생활을 밟지안엇다 그는사랑도업섯다 그러나 가치일하는 이를사랑하엿다 언제나 칠묵하는그는 그래도 예술을 말할줄아는이와는 술을나노으며 밤을 밝히는때도 잇섯다

만약 리경손씨를 차진다고하는이중에 이 리씨를 리용해먹으랴고 덤비는사람이 만헛슬것이다

그것은 리씨가 말이 약한까닭도잇다 어떠한 코스모포리탄에 갓가운 그는 영원토록 자긔의 반려자(伴侶者)를 생각아니하다고는 할수업다 그는이사동(仁寺洞)에다가 『카카듀』라는 찻집을내이고 거기는 옛날 유명한 현순복사의 령양인 상해로 미국으로 도라다니든현미언양을 『매담』으로 그는 애련(愛戀)의날을 보냇섯다 이애로한 생애를 결국 상애로 옴기고는 리씨는 소식이업다

◇

그런대리씨는 장한몽 춘희 심청전 봉황의면류관중에 오히려 지금에나오는 그어느영화보담도 우수한 감독수법을가진 영화를 맨든것이잇섯다

씨가 상해로가자 여운형씨소개로정긔택씨가 상해어느영화(영편공사로드러가 잇섯슴으로 리씨도 정씨소개로 입사케되엿스나중국사람은 호화로운 사람을조하하엿든지 리씨가리 검소하고 사교성업는이를 아러볼리치가 업다그래서 다시 그쓸쓸한생애에드러갓다한다

◇

리씨에대한이야기가 너무기럿다 이제부터 라운규씨에대한이야기를 좀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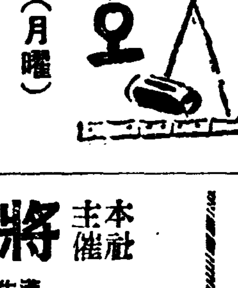
나씨는 계림출나와 가지고향인 함경도에갓다오더니 일본내지인의 자본을끄러 『아리랑』을제작하엿다 김태진(金兌鎭)영화로는 나운규(羅雲奎)와 윤봉춘(尹逢春)전옥(全玉)등가리 이영화를 맨드럿다 조선영화로써 그때에 이만큼 관중을 감격케한영화는업섯스리라고본다

여기의 리용된 민요(民謠)「아리랑」이 동경 대판등지에서까지 레코드를통하야 유명해젓스며 라운규씨의 인긔가 비등하엿다

그뒤에 이아리랑의인긔를 리용하야 『아리랑』후편(後篇)을촬영하여 흥행성적은 조햇스나 원아리랑보담은 영화가 부실하엿슴은 아죽도 긔억된다 여기에 촬영긔사 리명우씨의 노력이잇섯고 또 이 리명우씨를 출세케한 그의형님인 리필우(李弼雨)씨의 힘도컷다 그래서 리씨와 리명우씨는 언제나 가튼콤비로영화제작을하엿다

上은 카더리나헵번의 主演映畫(上) 푸란다스의개 (靑상한동무)少年主演 푸란키도、마스의主演映畫(下) 둘다 RKO社特作으로 不日市內에서封切

라듸오



二十四日(月曜)

◇午後六時 童話 이상한피리 延星欽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徐椿

◇同七時三○分 講演 新聞의特租稅問題 貧과社會生活 薛義植

◇同八時 遊山歌外 一、遊山歌 二、雜遊歌 三、제비가 四、방아타령 金一朶紅 金明淑

◇同八時三○分 古談 『美人計』 張志浩

◇同九時 기ㅣ타와플루ㅣ트 一、플루ㅣ트와기ㅣ타二重奏(론도) ……쥬리아니作曲 二、기타ㅣ獨奏 『라란델라』…메르쓰作曲 三、플루ㅣ트獨奏(기타ㅣ伴奏) 『별이반작이는밤』『풀카舞曲』……빗도리아作曲 플루ㅣ트金觀鎬 기타ㅣ 高橋功

第一放送

◇午前一○時三○分 (大)婦人時間

◇同一一時○○分 (東)젊은夫人의게 이야기

◇同一二時三○分 (東)講演

◇午後八時 (東)歌謠의밤 一、歌謠劇 二、歌謠曲 三、歌劇物語

廿五日(火曜)

◇午後零時五分 (東)하ㅣ모니카와 맨돌린 一、하ㅣ모니카合奏 (가)카푸리島…그로씨作曲 (나)그리운만조…川口章吾作曲 (다)도라오라소렌토에…伊太利民謠 (라)오! 카라미아…브로데스키作曲 (마)픠코로노…바ㅣ리作曲 二、맨돌린五重奏 (가)夜曲"겨울夜"…부分暑作曲 (나)폴카"鍾소리"…리라作曲 (다)伊太利民謠두개 一、아름다운도리나여오라 二、나는作別하엿다 (라)東洋風行進曲…코르만네크作曲 (마)스페인舞曲"聖誕"…맷차코作曲 指揮 川口章吾 第一맨돌린 루비스·킨드레 吉井俊二 第二맨돌린 有岡一郞 만도라 高允錫 만도로네 佐藤信郞 기타ㅣ 小林行治

◇同三時一五分 家庭時間 "어머니의마음" 金鳳姬

◇同六時 童謠 一、齊唱 로끼의귀 二、獨唱 집업는고양이 三、齊唱 별애기 四、獨唱 세을흔다가 五、齊唱 휘바람 六、獨唱 고추먹고맴맴 七、齊唱 버드나무열매 八、獨唱 어릴때 淸川幼年主日學校兒童 伴奏 朴玉順 指揮 洪聖恩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知足" 金德文

◇同七時三○分 趣味講演 "血液으로본個人의性格" 鄭錫泰

◇同八時 流行歌 一、꼿업는旅路 二、그대의마음 三、바다의靑春 四、자장가 五、하와이의달밤 六、달도집니다 七、저언덕을넘어서 尹鍵榮 DK管絃樂

◇同八時三○分 伽倻琴散調와竝唱 一、散調 (가)진양됴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竝唱 (가)短歌 天下泰平 (나)唱劇調토기타령 皷手 曺明洙 趙相鮮

◇同九時 映畫이야기 朴應冕

第一放送

◇午前一○時三○分 (東)어머니의時間

◇午後二時 家庭講座

◇同六時 (東)이야기

◇同七時三○分 (仙)講演

◇同八時 浪花節

◇同八時三○分 (東)長唄

◇同八時五○分 (東)라듸오·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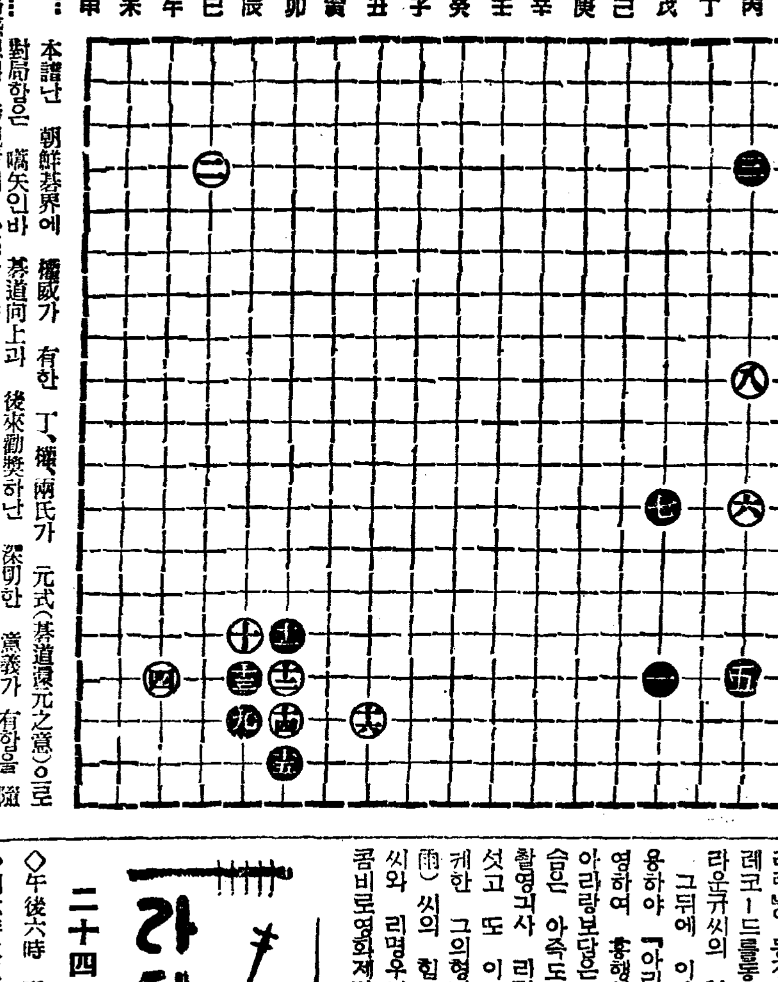
☆暦☆ 二月廿五日(火) 二月小健辛卯(三日) 丁丑·水·鬼·閉

●祭祀에宜함 ●驚蟄六日(舊十三日) ●春分廿一日(舊廿八日)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

白 丁奎春 黑 權秉郁

●一 寅의十六 ○二 巳의四 ●三 丙의四 ○四 午의十六 ●五 丙의十六 ○六 丙의十二 ●七 戌의十二 ○八 丙의九 ●九 辰의十七 ○一○ 辰의十五 ●一一 卯의十五 ○一二 卯의十六 ●一三 辰의十六 ○一四 卯의十七 ●一五 卯의十八 ○一六 丑의十七



◆觀戰者談

本譜난 朝鮮碁界에 權威가 有한 丁、權 兩氏가 元式(碁道還元之意)으로 對局함은 嚆矢인바 碁道同上과 後來勸奬하난 深切한 意義가 有함을 隨하야 夥多한 對局感想과 傍觀者의 小感을 倂記하와 同好人士의 抑揚에 供코저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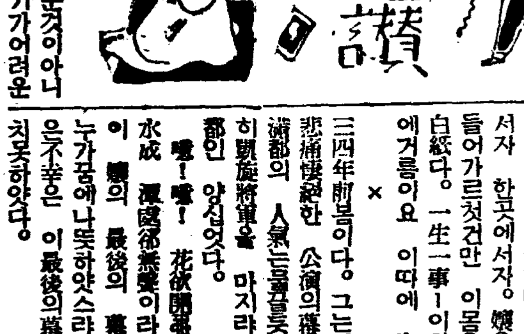
○白六(丙의一二)난布局大勢上已의 四가 安當하다난 白의 感想에 同意하고십다

○黑七(戊의一二)난實利上丙의 九에 緊着하얏스면 하난 黑의 感想을 尊重한다

○白一二(卯의一六)以下白一六(丑의一七)까지의 經過난 必然이나 白一二를 卯의一四、黑卯의一六、白寅一四、黑子의一六、白巳의十에 布局함도 無效하다난 對局感想을 是認하고십다

아까운故李景雪 (下)

그人格만도超絶했다



사람이나기가 어려운것이아니라 서기가어렵고 살기가어려운 것이아니라 죽기가어렵다。나의 親舊여 이따에선者가 누구며우리中에서누가 설者이냐。嬡은二十에섯다。누구나다 各各한일에 서자 한곳에서자。嬡은그의몸을 들어가르처견만 이몸은 아직도 白紙다。一生一事一이것이 이따에 거룩이요 이따에 生命泉이다

×

三四年前봄이다。그는圓城社에서 悲痛悽絶한 公演의幕을열엇다。正滿都의 人氣는휩쓸듯하얏다。正히凱旋將軍을 마지라는 戰勝國都인 양싶엇다。

噫! 噫! 花欲開而方有色이요 水成源處浴無聲이라든니 이것이 嬡의 最後의 舞台일 줄이야 누가꿈에나뜻하얏스랴 薄命하다 嬡은不幸은 이最後의舞台조차 參觀치못하얏다。

未久에嬡은독레코드吹込次로東京行을지으오랫스나 돌아오시—지치고 숨이日光에가벗섯다하니 松葦가爲하야變色하고 山嶺도오지안는다。이무도禍殃이나 이때에嬡은발서病이膏肓에들어 결국이江戶에 …히려는것이엇슬것이다。이때에서야 나는처음으로嬡의 …들엇다。

嬡의고달픈몸으로 약약한걸음이三步에一喘 十步에一憩하든그日光을 내가밟기는七月六日翌七日富士登山 八日早朝下山 一路惚惚히嬡의療養地인 別府로갓슬때는 그의星光은 이미九分이나기울어 歸國한지數週엿다 山川이앗득 遠近을不辨 嬡을爲하야우지안코 누구를爲하야울랴!

×

그러나나는 하마하마!하면서도밋엇다 지금도밋는다 이따에어버이가가시고 어진이와義人이꺽기고 兄弟가呻吟하며 아들들이歎息한지오래다。엇지、또우리의한누의마저것우시랴! 함이엿다

嗚呼 울어도울어도 다못우를이몸이 눈물조차업드니 期約은차다。땅을두다리며울날이와다。

(三四年)八月二十八日午前六時 淸津邑新岩里自宅에서 李景雪孃長逝 享年二十三 劇界生活九年。

이것이嬡의 寂滅의 悲報엿다

(三十日附各紙)

×

『니우를』은嬡終에 머리마레노하詩計를잡어 고요히胎葉을갈다가 자는듯출이가갓다。

嬡이야말로 喜悲交集 如哭如笑하야 安立을일코 풀어진이江山의心絃을감다가 감다가 가신님이다。念念心禱厭。

×

아! 嬡은 그어데계시뇨。寂寥爲天下母 逝還作無量法。

×

童肩을휘감기 苗父를솔려학가臘怒와大譴이 이다지急迫하다。그러나채찍에 피가아직마르기前까지는오히려一條新生의 光芒을본다。채찍이것치고 怒함이 풀릴가。그울음허哀慟하라。

×

드르니天國은 시집도안가고、丈家도들지안는단다。永遠까지聖潔한處女、二三의處女여嬡은길이이따에居하사、이江山의님(神)이되여지이다、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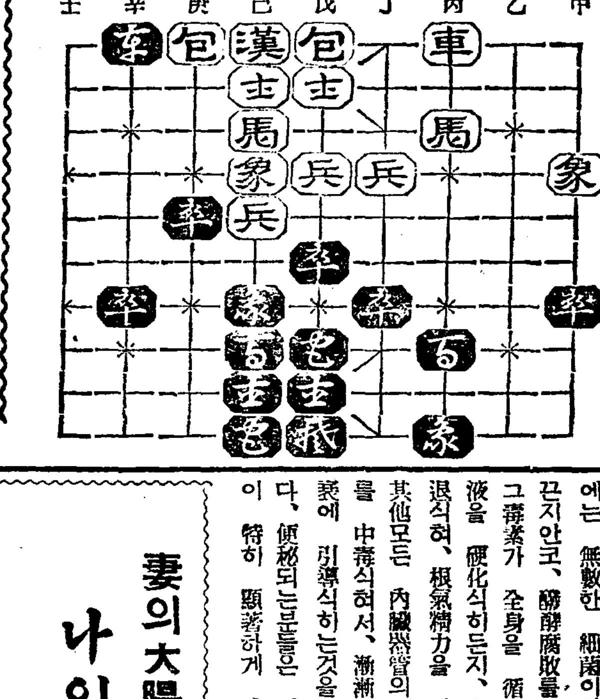
晴月은皎明하고、春雪은아직도희다。潸淚合掌。

李鼎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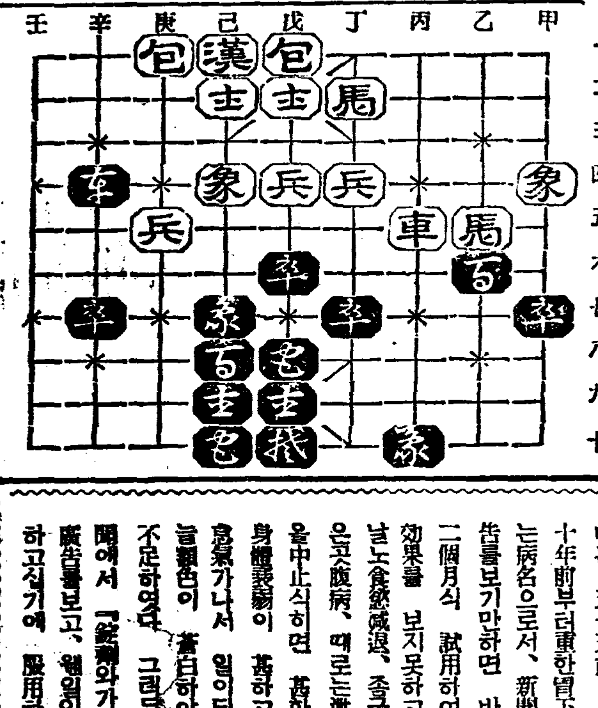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五)

漢 先手減一兵 李在鳳 楚 金漢榮

◀四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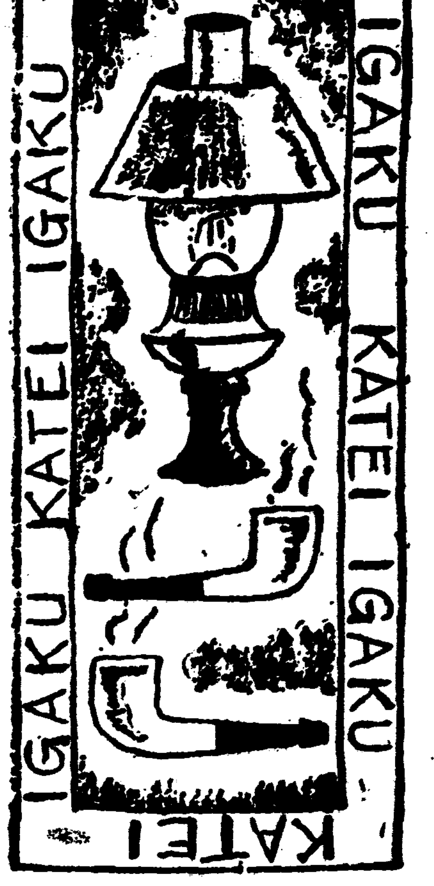
◀五十手圖▶



己五兵—庚五打卒 乙七包—壬五 丙三馬—乙五 丙八包—乙六 己三馬—丁二 丙一車—丙五 辛一包—辛三 辛三包—辛三 丙五車—丙五 壬五包—己五

近代醫學으로본 不老長生法

便秘되는분들은短命



米國의 黃金王카ㅣ네기가、百萬弗의賞金을걸고、更少하는研究를世界의醫學者에 懸賞하엿든바로 그研究를申請하야오는사람이업고、오직한사람、獨逸某醫學者가젊어지는秘術은、老人의睾丸에 젊은사람의머리를 移植함에잇다? 늙고、揶揄하는書面을보내엿다고한다。

아모리莫大한 黃金을싸어드라도、또한優秀한 醫學者를모아서 研究를식혓드라도그러케不老長生이至難한바로서、

更少하는秘術은

그有名한 스타이낫하의更少手術(精系의結紮法)부론·세칼ㅣ의스페르민注射(젊은動物의睾丸에키쓰(使用)其他、人蔘、何首烏의服用等은、古今幾多한研究家에依하야 發表되여오든것인바、어느거나千古를 通하야保證될만한것이업다。

아모리하더라도生에는限이잇고、人에는天壽가잇는것이다。이天壽를完全히누리려고하는것이、醫學의目標이다、또하잡다운意味로써이不老長生法인것은、말할것도업는일이다。

그런데、이醫學上으로서본安當한不老長生法으로써、現在가장널니認證되고잇는것은、메치니코후博士가提唱한「便秘有害論」을基礎로한것이다。

메치니코후博士는、人體의大腸內에는 無數한 細菌이잇서이것이끈지안코、醱酵腐敗를 이르켜、그毒素가 全身을 循環식혀 血液을 硬化식히든지、生殖腺을衰退식혀、根氣精力을 빼앗기든지其他모든 內臟器管의 組織細胞를 中毒식혀서、漸漸그것을 老衰에 引導식히는것을 指摘하얏다、便秘되는분들은 이中毒現象이 特히 顯著하게 나타나서、便秘되는 사람은 長壽家가업는것도 그때문이라고한다。그럼으로 이大腸內의 有害菌을殺滅하며

腸內를 淸掃하면

中毒現象도 防止되고、老衰現象도 나타나지안는며、따라서老를防止、壽命을延長하게된다고하는것이、메치니코후博士의不老長生論의骨子이다

이論文이發表된뒤로부터 腸內의細菌을殺滅식히는目的으로서 여러가지의整腸劑나腸內殺菌劑等이續出한바이지만 그에는 그러케効果가充分치못하고 理論上으로는이잇더라도實際에는製劑上의技術的困難으로그作用이期待그대로되지안는다고하는缺陷이잇다그러치마는最近에와서此等藥과는性質이判異한것으로써 흔히메치니코후博士의 說과가리腸內의有害菌의發生을防止하며便秘의害를除하게하는効果가잇는藥劑가發見되엿는데 一般에널니便用되게되얏다그것은헤ㅣ케라고하는 一種의藥用菌을科學的方法에依하야 製劑한有名한錠劑와가모도다。

優秀한 活性酵素

이藥의 特長은、所謂綜合効果에잇다。만흔成分을 包含한바、特히 整腸殺菌等의 作用에給與하는것은、十數種의酵素와 뻬타민、누구레인、구리코겐等의 營養素이다。

活性酵素와 뻬타민은말할것도업고 胃腸의 機能을 助長식혀 消化吸收、通便을 快하게하며、누구레인은 細菌殺滅을 助長식하는데 特効가잇다。

구리코겐은 體內毒素를 解毒식하는 肝臟의 活動을 旺盛케한다。

그外에도 脂肪、蛋白、無機鹽類等의 各種營養素가 網羅되야서營養도 增進됨으로서、이것이 모다綜合的으로活動하는結果로서體內機能은快調케하며精力을充實하야 早老와老衰는自然히防止되는것이다

疲勞는이러케防止

激烈한 勞働이나 運動을하더라도 뒤에쉬지안는데은、疲勞가重疊하야 疲勞物質이 쌓이게 되고、乃終에는 疲勞의 可恐할病을 誘發식히다 運動家나 工場勞働者에 結核이만흔것은이때문이다 이런때에『錠劑와가모도』를 服用하면그中에는運動、勞働精力의源泉이되는누구리코겐이나、그것을 補하며精力의 減退를防止하는뻬타민B나生活機能을 活潑케하며 新陳代謝를旺盛케하는活性酵素를含有함으로 短時間에疲勞를恢復하야 新精力을 盛하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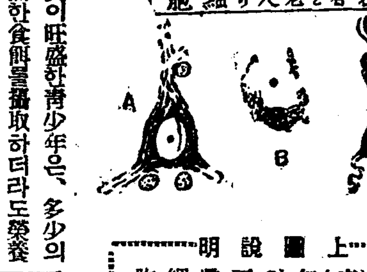
老人의飮食物에

特히研究하서야된다

年期를지나면、成年이中止되고、新陳代謝는衰하야오는것이普通이지만、그것이現著하게나타나는것은消化器인바、重要한消化酵素의分泌이衰하야 腸의

蠕動

運動도圓滑을缺하게되다。齒가弱하야오며消化不良이생긴다、



上圖說明 A는靑少年의正常細胞 B는破壞된老人의細胞 C는萎縮變形된老人의細胞

成長이旺盛한靑少年은、多少의不自然한食餌를攝取하더라도榮養이되며 에네루기로轉化되야困難을感하는일이업다。六十歲로부터七十歲以上의 所謂長壽를 所持하는老人들은 조곰한過食 偏食이案外로影響되는것이다。大體中風、便秘와貧血의慢性症을惹起식히기쉽다。따라서老人의食物에는누구나苦心하게되이지만、그에對하야最近에、東京帝大醫學部의尼子博士가六十歲以上의老人百名에 三日間特別食을 給與하고그排便을調査한바、老人의胃腸內에는脂肪이 가장消化吸收되지안코、따라서肉類가낫부고、澱粉이가장消化吸收된다고發表되얏다。

다음에 同博士는 胃腸內의 消化酵素를取하야試驗管에너허脂肪肉類、澱粉에對한酵素의活動을研究한結果、한가지로排便에서檢査한거와同樣의結果를어덧다 (讀賣新聞所載)

따라서 老人의食物은、米、우동等의澱粉을 中心으로、副食物노서될수잇는대로 消化가잘되는魚肉이다。

野菜

等을가추어、他肉類及脂肪等은 消化를鐵國에서 少量식攝取하는것이숏다。그런데 요즘에는、이러한食物의選擇에만 信賴할것이아니라消極的方法보다도훨신進步된、胃腸機能을 根本으로부터튼튼케、消化吸收를促進하는『錠劑와가모도』의 服用이常用되고잇다。

이藥에는、脂肪이나肉類、澱粉、老衰에 依하야減退한體內에消化되며、各種의消化酵素는 勿論新進代謝作用을亢進식혀、胃腸을비롯하야全身諸機能을 活潑케하는成分이나、더욱히人體에必順한榮養素도 豊富히 含有하고잇다、그럼으로老人되신분이『錠劑와가모도』를服用하여서부터

消化

不良이나便秘가防止되고、榮養이充實하야、血色이조코每日 疲勞도돗기지안는다 이藥의効能은 더말치안허도알게되다

더욱이『錠劑わかもと』는 二十五日分一圓六十錢、八十三日分五圓、東京市芝公園大門際、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番)에서 發賣하고잇다、近來에그聲價를利用하야効果에疑問잇는類似品(酵母、뻬ㅣ루酵母劑라고하지마는類似藥이다)을勸하는藥店도잇스니주의하라。

妻의大腸가다루와 나의慢性胃病이

(福島) 道野彌一

나는、五十五歲 十年前부터重한胃下垂라고하는病名으로서、新聞雜誌等廣告를보기만하면 반드시一二個月식 試用하여보앗지만効果를 보지못하고、(中略)날노食慾減退、조굼든 食物은곳腹病、때로는泄瀉、그것을中止식히면 甚한便秘로서身體衰弱이 甚하고 全身이急氣가나서 일이되지안코、늘顔色이 蒼白하야 營養이不足하엿다 그러든中에 新聞에서『錠劑와가모도』의廣告를보고、웬일인지 試用하고십기에 服用하여보앗고

하는 요즘에東京에서 季氏가(醫師) 年始로왓는데 例의病을 말하면서『錠劑와가모도』란 藥을 물엇드니、醫師인 季氏는數年來로妻子들게服用식히는中이라고 하기에 곳사다服用하기 始作하엿다。食慾이 增進하며、顔色이나어가고、全身에元氣가나고、家內가모다 늘날마즘健康하여다 이것을 妻에게服用식혓드니 오랜痼病인大腸가다루가輕快(中略)只今은 一家壯健、和氣生生하게지냅니다(後略)

進呈!

一等、參千圓割增金付勸業債券二枚宛

『錠劑와가모도』抽籤券附特賣

全國藥店에서一齊賣出中

詳細는藥店에問議하시오。

酷寒과 營養不良으로 未聞의 凍死沙汰

家畜群受難時代

개、닭、소、도야지 오리등등 東興、江界엔 全滅狀態

【新義州】 지난 겨울의 추위는 국경(國境)지대에는 일층심하여 평북의 극한지(寒地)중강(中江)에서는 나무가지에 안젓든''새''가 동사(凍死)하엿다고하거니와 당시의치위를상상하여볼수업는 진현상이 겨울을지난 오늘에야 비롯오탄 정보가 평도에드러왓다 상류 동흥(東興)에는 례년에보지못하든 치위가계속되여 련하 삼십칠도를 중심으로 삼고''오로''나려''이 치위에 가축(家畜)이 매일같이 동사하는 수가 하도만흠으로 동흥서 관내에 이러난 수를 조사한바 눈(雪)이오면 기뻐날뛰는 치위에''강''한개(犬)입배십이두(頭)의 동사를 필두로 닭(雞)이백사두 소(牛) 도야지(豚)등 각각 사오두 겨울에도 물을 조하하는 집오리(家鴨)두마리가동사하엿고 강계(江界)경찰서관내에도 ''치위로인하야 동사한 가축도잇슴더러 이지방은 작년의 흉작(凶作)으로인하야 사주(飼主)와 가티 소(牛)와 도야지(豚)도 모다 영양불량(營養不良)에 빠저잇는중 돌연의 극한으로 말미아마 죽은가축의수는 헤일바업스며 따라농가(農家)는 이중、삼중으로 손해를 입어 압날의 생도가 막연하다고한다

은 다시 반가운뜻을 표하고잇다고한다

龍浦金組支所 組員이 設置陳情

【伊川】 강원도이천군룡포면(龍浦面)에서 면민이백여명이 룡포면문동리에다 이천금융조합룡포지소설치를 지청하엿다는데 현재 금융조합원이 룡포일개면에만 팔백여명에 달하는바 이천면과 판교면일부를 구역으로정하야 지소를 설치하야달라는것인바 룡포면장 김성진(金聲振)씨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다하야 면민의 그대하는바 면내중요문제이니만치 금번 강원도회를비롯하야 요로당국에 적극적활동을하고자 한다고한다

女性問題講演 女性同友會主催

【鎭南浦】 진남포 녀성동우회(女性同友會)에서는 오는이십팔일오후칠시반부터 진남포 공회당에서 녀성문제대강연회를 본보진남포 지국후원하에 개최하리라는바 강사는 경성중앙보육학교장 임영신(任永信)선생이라하며 연제가 조선녀성의 사명(朝鮮女性의使命)이라함으로 중요성을가진 문제이니만치 벌서부터 당일의 대성황을 예기한다고한다

伊川支局主催 蹴球大會開催

【伊川】 본사이천지국에서는 군내체육발전을 목적하야 다음과 가티 이천군축구대회를 개최한다는바 다수참가를 바란다하며 특히 본사이천지국의 우승기까지 수여한다는데 자못성황을예기한다고한다

一、時日 三月二十二日午前九時
一、場所 伊川公普校運動場
一、申請金 一團二圓(更申請時添付)
一、申請所 本社伊川支局
一、申請期 三月十五日까지
一、賞品 優勝旗外副賞

大同社擴大委員會

【大田】 대전으로 옮기게된 동사(大同社)본부에서는 지난이십이일오후한시사십분부터 부내 대화루(大和樓)에서 전선 확대위원회를 부의장 강상호(姜相鎬)씨 사회하에 개최한바 출석위원은 각지에서 오십여명이나되여 가장성대히 다음과 가튼 토의안을 결의하고 여섯시경에 원만히 폐회하엿다는데 금번 위원회에 가장 주목을 끌고잇는 문제는 대동사에서 벌서부터 계획하여오든 우피통제(牛皮統制)를 실시하야 좌 경영하게되엿다한다

討議事項
一、本部移轉에關한件 一、本部維持에關한件
一、中央執行委員에關한件 一、部署變更에關한件
一、規約修訂에關한件 一、光州公判에關한件
一、地方巡回에關한件 一、定期大會에關한件
一、日常鬪爭에關한件 一、其他

骨牌、酒稅等違反 罰金等卄三萬圓

【平壤】 평양 세무감독국에서는 소화십년도의 주세(酒稅)골패세(骨牌稅) 인지세(印紙稅)의 범칙을 조사중이든바 일전에 완료되엿는데 그범칙건수는 이천백구십여건으로 이에대한 벌금 과료 추징금 몰수품을 합한 금액은 이십삼만원에 달한다는데 내역은다음과갓다

◆酒稅違反 七〇二件 罰金 八一、一五九圓 科料三、一二五二圓 追徵金 八二圓 沒收品五九二圓
◆骨牌稅違反 一〇八件 罰金一四八、五三〇圓 科料 一一三圓 追徵金 六〇圓 沒收品二
◆印紙稅違反 一、三七九件 科料 四、三三二圓
◆淸凉飮料水稅違反 二件 科料 二五圓

그런데 전긔범칙중에서 한거번에 가장만흔벌금을 지불하게된자는 평북지방의골패위반 십사만륙천원과 황해도의 주세위반의 만오천세백사십사원등이라 한다

張晉澤氏美擧

【谷山】 곡산군상도면 지경리구장 장보준(谷山郡上圖面 地境里區長 張普淳)씨는 자기의 일년간급료(給料)일백륙십원을 리민들이 가난에 헤매임을 측은히 생각하고 전부분아주엇슴으로 리민은 그의고마운뜻을 감사히생각한다고한다

公普校設立費로 各一千圓을喜捨 金浦鄭尹兩氏美擧

【金浦】 김포군당국에서 다년숙제로 삼아오든 양서면공립보통학교(陽西面公立普通學校)는 금춘에 설립하기로 결정되엿는바 이소식을 들은 동면송정리(松亭里)정인섭(鄭寅燮)씨와 동면개화리(開花里)윤명환(尹明煥)량씨는 동교설립비로 일천원식 긔부하엿다는데 일반은 량씨의 독지에 대하야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災地長山面民大擧 面所에殺到肉迫 旱害救濟策講究絶叫

【木浦】 전남무안군장산면(務安郡長山面)에서는 지난 십륙일에 각구총대이백여명이 동면사무소에회합하야 한재구제(旱災救濟)방침을 군당국에서 벌서수립하엿슴도 불구하고 구제사업이 업슴을 개탄하야 면당국에 책임을 질문하는동시 면사업에관여하는직무가잇는면공직자의 무성의를 규탄하고 총사직을 권고하는 한편 도당국에 진정하기로 결정하엿다는데 사건의내용은 장산면(長山面)경작지는 논이삼백여정보와 밧이백팔십여정보인데 이를생명의토대로하고 생활하는 면민이사천여명이라한다 이들은 작년한재로 인하야 미식부답(未植付畓)칠백여정보이외에 심어고도 수확이 업는논이 일백사십여정보로 지세(地稅)칠백원중에서 면세(免稅)가 오백팔십구원으로 지난일월십일에 무안군 당국은 면장회의를 열고 한재구제에 대하야 근본방침을 토의한결과 제언보(堤堰洑)등의 수축으로 구제책을세운바 장산면에잇서서는 이러한 구제방책이 업는것은 면당국과 면공직자의 무성의라하야 회장은 대소동에빠저섯는데 면민들은 자긔주장을 관철하기위하야 좌긔의 진정위원을 선출하엿다한다

◇陳情委員―張東仁 張洪琰 金鎔結 鄭享來 朴寅植

警察部繼續活動 又復靑年五名檢擧

事件內容은讀書會嫌疑인듯 長城檢擧事件益擴大

【長城】 전남경찰부(全南警察部)로부터 장성군삼계면(長城郡森溪面)에서 청년사명을 검거하야갓다함은 임의보도한바어니와 그후로도 경찰부자동차는 장성을 왕래하며 계속검거와 취조를하는중이라는바 이십일일까지 검거된인원은 다음과갓다하며 아직도 검거의손은 거두지안는모양인데 압흐로만흔 검거를하리라하며 사건의내용은 절대비밀에 부치여 자세히는 알수가업스나 전하는바에 의하면 륙칠년전에 그곳사창(社倉)공립보통학교 동창회(同窓會)가 해산하면서 긔본금이얼마간 잇는것을 가지고 책이나 사보기로하야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한것이 불온한 서책이잇서 발단된 것인듯하다는바 장성서는 근래에드믄 삼엄한 경계중에 수사망을 느리고잇는 모양이며 일반은 이사건의 진전을 주시중이라고한다

被檢擧者氏名
森溪面舟山里 宋炳云 宋炳燁 金永基 宋炳一 鉢山里 金皓鉉 社倉里 宋演珍 森西面小龍里 羅城烈 社倉里 洪鍾閣

學校增設費로 六百圓을寄贈 兪昌植氏盛擧

【扶餘】 부여군 규암면 신리(扶餘郡窺岩面新里) 유창식(兪昌植)씨는 객춘근동사개리에 학령이 초과하야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아동이백여명에 달함으로 이것을 항상유감으로 생각하고잇든중 군당국으로부터 규암면에 간이학교를 설치할내정이 잇다는말을듯고 흔연자진하야 일금천원을 간이학교설립비로 희사하엿다함은 당시본보에 보도한바어니와 요즈음에 와서는 규암면 보통학교가 현재사학급이 협착함으로 이학급을증설하야 륙학급으로하는 학급증설기성회를 조직활동하고잇는바 전긔 유씨는 동교를 생각한나머지학급증설비로 일금륙백원을 또한자진희사하엿슴으로 동교당국자와 밋일반학부형들은 칭송이 놉다한다

公普校高等科 鐵原만은繼續

【鐵原】 금춘각처 공립보교고등과 폐지문제중에 하나로 잇든 철원공보교를 폐지하라는 도지사의선언이 신년벽두에 잇섯다 이에 대하야 철원유지측에서는 당국에진정수속까지 하야 오든바 이를안 철원아부군수(阿部郡守)는 자신이 당국에즉접교섭할터이니 당분간기다리라 하고 지난이십일 등청하야 도지사와 학무국장급 경무국장으로 더부러 장시간상의한결과 다시철원공보교에만은 청원중학이 생길때까지는 고등과를 계속하기로 승인을엇고 도라와다하야 일반

谷山郡下長山洞에 발진지부스猖獗

五十餘戶村落에서十餘戶呻吟 벌서死亡者도五名

【谷山】 곡산군 운중면 장산동(谷山郡雲中面長山洞)은 약오십호되는 촌락으로 발진지부스가 만연하야 벌서 십여호에 만연되엿고 사망자만도 다섯사람이라는바 경찰에서는 방금 예방에 노력중이라한다

怪!列車便所에서 ''아이''나서 落下致死

永同署犯人을嚴探中

【永同】 지난이십이일 오전두시 팔분 경부선황간역착 제삼열차(京釜線黃澗驛着第三列車)에서 어떤녀자가 아이를나서 떠러틀려죽인것을 동일오전팔시경에 황간역보선구원(保線區員)이 역으로부터 약육백메돌되는 지점에서 발견하고 즉시소관황간주재소에보고하야 영동서에서 박사법주임(朴司法主任)이 적정공의(赤井公醫)를 대동하고 급거현장에 출장하야 검시해부한결과 차중변소에서 아이를나어서 죽인것이라하며 아이는 계집아이나 조선인인지 일본내지인인지도 알수가업다는데 동서에서는 방금각지로 수배하야 범인을엄탐중이라한다

怪!철느진春雪! 南國各地를猛襲

【進永】 봄바람에 느는 남국지방에 근래보기드문 큰눈이 내리여서 전선이 끈어저서 진영시가는 암흑세계를 일우엇스며 자동차교통까지 두절되엿는데 액운마흔 병자년을 우려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벌서부터 여러가지 풍설이 돌고잇다고한다

【密陽】 지난번 큰눈도 먼산골짝이에 겨우희득히보일뿐이고 거지반 다녹어 버들가지마다 물이올라 버들개지눈틀려는이지음 지난이십이일하오일곱시부터 경남밀양에는 때아닌 백설이나려기시작하야 새벽까지 척(尺)여나싸혀 이로말미암아 각지와의 자동차선로는물론 전신전화의 종물통정선의 고장으로 밀양일대의 암흑화등 문명리긔가 총정지된 희한의강설로 봄마지에여념업든 남국밀양은 우울케하엿는데 전등선은 마침내 십이시경오예야 복구되엿스나 자동차교통의 복구는 언제나될는지아직알수업다하며 일긔가비교적온화함으로 눈이속히녹어 이십사일아츰부터는 중요자동차선로도 개통되리라는바 이가 병자년을 흉몽을 어떠한징조나안인가하고 일반은 머리를 움기웃거린다고한다。

【谷城】 전남곡성군일대에는 이십이일오후 오시경부터 나린눈이 척여로써여 중요교통로가 이십삼일부터 두절되고잇는데 산간벽지와의 교통은 더욱막연하야 절량절담된궁민들의 생활선상에는 다대한 위협거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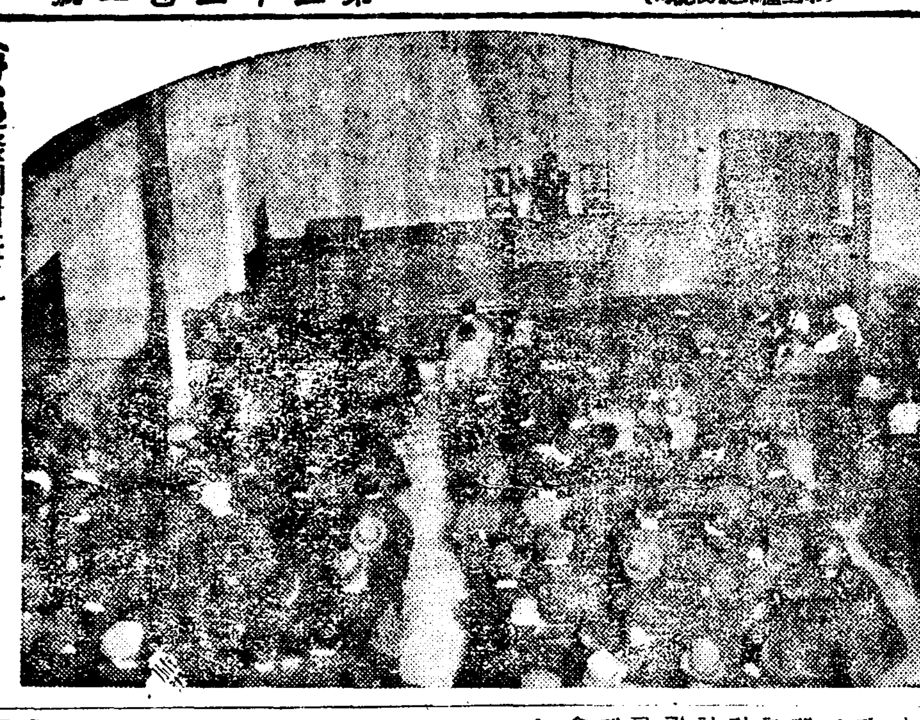
【馬山】 당지에서는 지난이십삼일 새벽부터 눈이나리기 시작하야 동일오정때까지 한자 다섯치가량이나 싸히게되엿는데 이것은 마산지방에 잇써서 삼십년이래의 처음되는 큰 눈으로 일반은 퍽으나 희한히 역이는 한편 이것으로 풍년의 조짐이라 보고잇다。

【阿火】 경북한지인 아화지방에도 어느듯 먼산에아지랑이가 지기시작하며 동풍이 살살불든 지난이십이일 오후칠시부터 돌연준설이 나리기시작하야 익일오전칠시 경에는 륙촌여의 강설을보앗는데금년에들어 구정월한달에 전후삼회에나린눈(雪)이 이척여에달하야 경주(慶州)일대의 농민들은 벌서부터 맥풍(麥豊)을 예상하고 잇다한다

【泗川】 완연봄소식을전하든 과동가감작이 냉혹으로변하더니 경남사천지방에는 지난 이십이일 저녁부터 폭설(暴雪)이 나리기 시작하야 일천이촌의 강설을보게 되엿는데 따뜻한남조선에는 보기드믄 처음보는 강설이라한다 그리고 각선로에는 자동차교통도 두절되엿다한다

【新泰仁】 신춘이도라와 따뜻하든 일기가 지난이십이일오후에 별안간에 눈이나리기 시작하야순식간에 은세계를 일우엇다

【尙州】 경북상주지방에는 지난이십이일 오후칠시부터 눈이나리기 시작하야 은세계를 일우엇다



野、漫談의밤盛況 【平壤】 본사평양지국 주최、신춘만담과 야담의밤은 이십이일오후 일곱시삼십분부터 부내백선행긔념관에서 개최하엿섯다 야담계의 최고권위인 신정언(申鼎言)씨와 만담계의 경이자인 황재경(黃材景)씨의 량대장과량면인과 조선말가른영어、울고살가?웃고살가?등을절도할창한은 청중을 무아경에 끌러넛다가 동열시이십분경산회햇다 ◇寫眞……野談과漫談會場光景

異次頓의 死 【102】

李光洙 作　金奎澤 畫

알공의 말에 선마로의 얼굴은 푸르락 누르락하고 손끗은 떨리고 마츰내 옷니와 아래니가 떡떡 마조친다。

『늙은것이! 병든것이! 못난것이!』

하고 선마로는 불끈쥐인 주먹을 푸르르 떤다―

『내 손으로 형을 밀어내엇다는 말을 듯기를 꺼려서 내버려두니까 고마운줄을 모르고이제 도도하!웅』

하고 금방 일어서랴 하엿다。

선마로의 생각에는 군사들과 모한 대관들이 다 제 수중에 잇스니 금시에라도 말 한마디면 임금을 몰아내고 제 욕심을 채울수잇슬것가티 생각한것이엇다。

그러나 알공은

『이손!』

을 내밀며,

『어찌하시라고 일어나시오?』

하고 물엇다。

『더 참을수업지아니하오? 지금 군사를 풀어서 대궐을 들이치랴오』

하고 선마로는 또이 구옹을보엿다。

『아니오 그러치아니하오』

하고 알공은 말한다―

『군사를 풀어서 대궐을 들이치기는 쉬운 일이지마는 만백성의 입이 쇠를 녹인다고 아니하오。 이제 이손께서 몸소 군사를 풀어서 대궐을 들이친다면 필시 백성들이 이손을 조치못하게 말할것이오。 도로혀 상감께 동정을 할것이오。 옛말에도 천하를 엇기는 쉬워도 백성의 마음을 엇기는 어렵다고 하지아니하엿소? 백성의 마음을 일흐면 천하를 일는다고 하지아니하엿소? 그러니까 천하도 엇고 백성의 마음도 엇고 이러케 하는것이 상책이라는것이오。또 천하를 엇으랴다가 못 엇더라도 화단이 내 몸에 밋지아니하게 하는것이 성하거나 패하거나 양전지책이라는것이아니오? 그런데 이제 이손께서 군사를 풀어서 대궐을 엄습하신다면 행히 이기시더라도 천하는 엇을지모르나 백성의 마음을 일흘것이오 또 만일에 일이 여의치못하게된다면 화단이 이손의 몸에 밋슬것이오。 그럼으로 이제군사를 풀어서 대궐을 엄습한다는것은하지하책이오。 게다가 이차돈이 궁중에 잇는줄을 세상이 다 아니 아마 군사들도 누가 감히 압헤서 대궐문에 들어갈 생각이 낫것 갓지아니하고 또 만일이차돈이 칼을 들고 나선다면 아모도 당해내일사람이 업슬것이즉 깟다 잘못하면 이손이나 이몸들이나 다 도의 손에 목이 떨어지기가 십상팔구일것이오。 안그러오、공목이손?』

하고 공목을 돌아본다。

공목은 알공의 말에 정신이 현황하여서 입맛이 썻다。아모대답업시 몸만 좌우로 흔들엇다。

『그러면 어찌하면 조타말이오?』

하고 선마로는 알공의 말을 들으매 긔운이 꺽겨서 자리에 도로 안즈며,

『그러면 그 상책 이라는것이 무엇이오?』

하고 알공을 본다。

『그것은』

하고 알공은 잠깐 눈을 감앗다가 뜨며,

『그것은 다 이몸의 방촌 속에 잇소』

하고 자신잇는웃음을 웃는다。

『어듸 시언히 말을 좀 하오구려』

하고 선마로가 재촉한다。

알공은 천긔를 누설할까말까 하는드시 고개를 갸웃갸웃 두어번 하고나서,

『계책이란 임긔응변이라 미리 다 말할수는 업소마는 대강 변죽만 울릴터이니 알아들으시겨오。첫재는 여섯마을 모모한 사람들에게 상감이 불도를 밋어、이차돈의 손에 정권을맛겨서 불도를 아니 밋는자는 다 몰아낸다 이러케 말을 돌리단 말슴이오。그러면 다들 어이거 큰일 낫군。이차돈이 권세를 잡으면 우리는 어찌되나? 이차돈은 우리를 다 원수로 알터이니 필시 보복을 하렷다、이러케다들 생각할것이아니오?』

하고 선마로와 공목을 본다。

『그럴듯도 하지。그러고는?』

하고 선마로는 뒤를 재촉한다。

鎭南浦 女性問題大講演會

△時日 二月二十八日午後七時半
△場所 公會堂
◇主催 鎭南浦女性同友會
◇後援 朝鮮日報社鎭南浦支局

速히낫는淋疾藥 特製 루―베리
글음、압흠 쏙곳침
藥價 一円、三円、五円、十円 大阪市南久太郞町堺筋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六〇番 ・全國到ル處ノ藥店ニアリ

回效散 → 頭痛 齒痛과 頭痛에
效力이迅速하고評判잇는回效散은 神經痛에도가장特效잇다고하야 어느藥店에나 最近에는굉장하게팔립니다
理論보다 論據 一番試用하시라니
本舖 京城 森川製藥所 (全國藥店에잇슴)

개량담배대
型錄及定價表送呈합니다
製造發賣元 京城府鍾路三丁目六九 德昌工業社

婦人病에 調血精
이것이 조혈정
發賣元 日光製藥社 振替京城二三六四二番

모루히네 其他鹽類中毒에
福 모나―루의特徵
一、効力이迅速하고 禁斷症狀의苦痛을緩解하고 安靜을주는모르히네同類似痲醉藥의注射回數와用量을顯著히激減식힌다
一、等作用이持續性으로서 禁斷症狀의發現을 長時間抑制하야治療에何等의障碍를 주지안코一方夜間의安眠과食慾을 增進식히며 體力의增加와榮養을顯著히恢復하야 快히自然裡에드듸여健康體로 復歸케한다
包裝 皮下用 5管入 10管入 20管入 50管入
製造元 大阪市東區道修町 順天堂醫化學研究所
發賣元 田邊五兵衛商店
MONAL FUKU

胃腸 柏村博士創製 가타루의良藥 ヘルプ (헬프)
東邦胃腸藥中가장精妙한配劑에依하야 斷然光輝잇는成績을나타내고二十數年來의聲價를保持한헤루푸는 食傷、水傷、時候不調、冷暖腹痛等에起因된腸胃카다루의治療에效果가잇다 特히泄瀉腹痛을消退식히고消化와營養機能을促進식히는데는代用品이업슴니다
本舖 津村敬天堂

漢和辭典의大亂賣
大景品付半額提供
定價三圓을 單一圓五十錢에投賣
特製豪華版 漢和大辭典 紙數二千二百餘頁
クロース金文字入特裝美本 上等用紙・堅牢函入・裝飾的美本 木版草書三千餘個入・內容豐富 辭書界驚異・母子三萬三千餘 見よ・熟語解釋無慮十六萬語
本辭書는右記載와如히堂堂二千二百餘頁의大冊 … 昭和十年度最新刊行
注文案內

果樹苗木分讓
京城府外纛島 元園藝模範場跡 久次米園藝場

特別大景品 無代進呈
水晶認印
『朝鮮日報』愛讀者에限 漢和辭典注文者에 記念水晶印을無代進呈
積文堂特賣所

東洋劇場 劇藝術研究會公演 二十八日부터四日間
地上의天使 正義의復讐 賣約濟
中央館 彌之八愛憎仁義

小作調停令改正
그影響에關하야 ⑦
辯護士 李 [illegible]

三、改正과其影響=前述한바에 依하야 自明하야진것가티 今番의 小作調停令改正에 依하야 생기는 그影響은 ▲첫재=爭議의件數가 增加할것이다 本論 처음에 말한바와 가티 過去에 잇서서 不公平한裁判때문에 苦痛을 맛든 民衆들은 近世의法治主義의確立에 依하야「法에依한裁判」制度가 成立되엿슬때 그制度의必然的缺陷인 不融通性까지 이저버리고 다만 그公平만을 取하야 歡迎하얏다 그것이 公平하고 規則的이기 때문에 그러나 裁判의公平이 確立되자 그러나 裁判의公平이 確立되자 民衆들은 다시 그固執不通하는 [illegible]行動에 對한 苦悶을 늣기게되어 이에서「法에 依한裁判」을 維持하면서 一步를 進하야 裁判의 民衆的妥當性을 希望하게되엿다 더욱 農村生活은 土着性을 特色으로하나니 狹少한地域에 土着하야 朝夕으로 만나면서 日常生活을 營爲하는 農村에 잇서서의 紛爭 더욱 小作爭議와 가티 波及하는範圍가 넓고 또한 깁흔 爭議에 잇서서는 調停에依한 互相의理解와 讓步로 爭議를 終止식히는것이 참으로 爭議의根源을 斷絶식히는所以일지니 따라서 今後의 小作爭議에 잇서서는 이調停手續에 依한 解決을 申立하는 者가 만흘것이다 [illegible]

▲둘재=[illegible] ▲셋재=實際에 잇서서는 行政機關의 活動이 만케될것이다 [illegible]

▲넷재=[illegible] (終)

商權擁護코저 會社組織을可決
中央市場問題는調査研究키로
南市商人聯合會總會

京城南大門市場 商人聯合會 第三回 定期總會는 二十三日午後八時四十分부터 食道園에서 會員七十名의 出席으로 開會한바 收支報告가 잇슨後 討議事項에 들어가

一、將來中央市場實現에 對하야 調査研究에關한件

[illegible]

一、商權을 擁護할件

朝銀支店增設
【新京電話】[illegible] 朝鮮銀行新京支店에서도 [illegible]

朝滿兩銀協定
總裁次副總裁渡滿

會館新築件可決
京城商工協會總會

京城商工協會 第五回定期總會는 二十二日午後五時 太西館에서開催하고 事業報告、決算報告、豫算案承認件을可決하고

一、春期運動會는 五月第一日曜日 獎忠壇에서 開催키로決定하얏스며

一、會館新築件은 [illegible]

各港在米 數量增加
二十日現在調査

二月二十日 朝鮮內各港在米高는

民間米 一、四〇二、六三一 (單位石)
政府米 二九五、二一四
合計 一百六十九萬七千八百四十六石

今年度局線運輸

外國人會社數
昨年末現在狀況

朝鮮海運界活況

朝鮮內粟消費增
大麥移入量도激增

"高橋財政信賴"
豫算案은殆不成立
商法改正案其他保留

【東京電話】[illegible]

鰮粕協定會議는
當局折衷案도無効
今後形勢推移注視

市中金價續騰

滿鐵運賃 改正要望
朝鮮商議議員會

對外爲替市況
【東京廿四日電話同盟】

漢銀人事異動

▲三越支店長更迭

取引停止

經濟界消息

株式 形勢不良 低落
商況 (廿四日)

朝米 少堅裡에 保合

實物前場取引

全혀無風狀態
總選擧도無響

消極政策念慮
市場人氣惡化

大局엔無變化

今後軍擴必至
帝人操短好感買

民間米는潤澤
政府米는激減

今日財界 (廿四日)

市場六感

各地正米

朝取期米取組內容

堂島前場賣買

京城閑散

仁川保勢

釜山底强

大邱不變

群山軟化

木浦不動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一ノ一 電話長九一六 一六九三 一二六五

東亞證券 株式賣買 京城黃金町

金 銀 白金 賣買 大陸商會

朝取米 株 光川 康益夏商店 仁川府海岸町三丁目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金益證券株式會社

玉蜀黍購入
五圓二十錢也(正味百斤付)
平壤府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穀產工業株式會社

金融 (廿四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勢◆ ◆日本銀行勢◆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金買入價◆ ◆對外爲替◆

京城正米 (廿四日)

仁川正米大豆

商品 (廿四日)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綿布◆ ◆綿油沖價◆ ◆鋼糟粕沖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大阪綿絲◆ ◆大阪棉花◆ ◆橫濱生絲◆ ◆各地人絹◆ ◆大阪砂糖◆ ◆海外砂糖◆ ◆시카고期米◆

期米 (廿四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朝鮮內各地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正米◆ ◆各地正租市勢◆

株式 (廿四日)

◆朝取短期◆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實物代引日步◆